



문화로 상생,
예술로 소통 프로젝트

2021

강북 문화예술 플랫폼

Gangbuk ARTS &
CULTURE Platform

combine archive book

문화로 상생,
예술로 소통 프로젝트
2021
강북 문화예술 플랫폼

Gangbuk ARTS &
CULTURE Platform

combine archive book

Contents

문화로 상생, 예술로 소통 프로젝트
[강북 문화예술 플랫폼]

N개의서울
〈강북 클러스터〉 | 04

생활문화 플랫폼
〈예술마을〉 | 34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곶곶〉 | 52

도시문화LAB IN
〈강북청년집단 LRC〉 | 70

문화로 상생, 예술로 소통 프로젝트
[강북 문화예술 플랫폼]

01

N개의서울 〈강북 클러스터〉

2021 N개의서울 〈강북 클러스터〉

단계별 로드맵

사업 목적 및 방향

기획의도 및 사업개요

〈강북클러스터〉 추진체계

프로그램① 〈지역문화 공론장 ‘오픈게더링’〉

프로그램② 〈지역문화 기획자 양성과정 ‘더하리 기획학교’〉

프로그램③ 〈강북 일상문화 플랫폼〉

성과공유회

전문가 총평 및 제언

함께한 사람들



강북구 N개의서울 발자취

N개의서울 강북구 단계별 로드맵

단계	내용
1단계 (2017년~2018년)	[키워드: 발굴, 연결] - 인적, 물적, 지역이슈, 의제 등 다양한 지역문화자원 실태조사 및 발굴, 문화주체 네트워킹 모임 형성, 연합공연 진행, 문화네트워크 파티 등을 통한 자원 연계 네트워크 형성
2단계 (2019년~2020년)	[키워드: 확장, 콜라보, 네트워킹] - 지역문화자원 실태조사 및 발굴, 지역 문화정책으로의 입안을 위한 연구 조사,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확장 및 네트워킹, 플랫폼별 콜라보 네트워킹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
3단계 (2021년~2022년)	[키워드: 확대, 거버넌스, 일상문화] - 거점, 공유 공간 조성, 거점형 지역 커뮤니티 확대, 활동영역 확대를 통한 예술가와 시민의 일상문화 확대 기반 마련

사업 목적 및 방향

[강북구 일상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집합지]

- 이미 활성화된 문화예술단체와 신규 문화예술단체의 연결-발굴-콜라보를 위한 열린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문화예술성장을 위한 플랫폼(안정망) 제시
-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문화예술단체, 활동가, 기획자, 지역주민의 생존과 공존 및 일상문화 향유 확산을 위한 지속적 협력 구조 구축
- 민간과 공공영역과의 협치 구조를 통한 민·민, 민·민·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공의제와 정책에 대해 제안, 도출하고 정책화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지역문화진흥 방향의 합의된 방향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실천]

-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여러 주체들과 합의된 강북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방향 설정과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법 실천
- 1년의 사업을 펼쳐보고 시기적절하게 실천에 필요 방법들을 배분하여 프로젝트를 위한 운영이 아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활동이 목표인 문화적 분수효과 기대

[일상문화도시 강북 기반조성]

- 예술인 위주의 지역문화진흥 주체를 넘어 예술가, 시민, 공공이 협력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집합체. 예술가와 시민, 시민과 예술가는 예술의 생산자를 넘어 지역 내에서 생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

2021 N개의서울 〈강북클러스터〉기획의도 및 사업소개

기획의도

- 민간과 공공영역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협력구조 구축
- 지역 기반 예술가(및 단체), 기획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영역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지역문화 기반 마련
- 예술가, 기획자와 일반시민이 문화의 생산자, 향유자의 역할을 넘나드는 생비자적 역할이 많아지는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사업 내용

프로그램① - 지역문화 공론장 〈오픈게더링〉

- 동네 이슈, 지역주민, 예술가 등 현안에 관한 자유 만담을 나누는 포럼, 워크숍 형태의 공론장
- 5차년 사업 진행에 따라 강북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통의 목표점 (거점, 주제별)을 모색 해보고 실효적으로 필요한 실천 토대 마련

프로그램② - 강북 일상문화 플랫폼

- 예술장르를 구분한 네트워킹 플랫폼이 아닌, 관심분야, 활동영역, 문화적 생활 양식 등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플랫폼 구성
- 플랫폼별 개별 네트워킹 넘어서 플랫폼 간 협력, 주민과의 교류 등

프로그램③ - 지역문화 기획자 역량강화 〈더하리 기획학교〉

- 지역문화 공론장(오픈 게더링)에서 파생된 지역문화 현안 및 (주제, 공간)이슈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기획에 관한 접근
- 지역문화 기획에 관한 개념교육 및 타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강북 지역문화 이슈에 관한 문화적 솔루션 프로젝트 진행

2021 N개의서울 〈강북 클러스터〉 추진체계

추진 체계



추진 절차

- (사전논의) 상반기 2~4월 당해 연도 참여 주체 및 재단 간 사업 계획과 설계 논의, 사업운영 전/후반기 세부 운영논의
- (사후공유) 주요사항 논의 및 프로그램 이후 주요 내용 공유(네이버 카페 적극 활용) 회의록 및 주요 활동내용 공유 플랫폼 활용



- 〈강북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N개의서울 강북구 네이버 카페 연동 배너 구축〉

- (사후평가) 사업 전체 종료 후 연간 운영사항(기획인력, 프로그램, 홍보, 공유 플랫폼 등) 전반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개선/보완 사항 논의 및 향후 계획 반영

지역문화 공론장 〈오픈게더링〉



프로그램 개요

기간 | 5월 ~ 12월 (총 23회)

장소 | 강북구 민/관 공간 *회차별 상이

방식 | 오프라인(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하에 소규모 다회차 운영방식)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동네 이슈, 지역주민, 예술가 등 현안에 관한 자유 만담을 나누는 공론장
- 5차년 사업 진행에 따라 강북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공통의 목표점(거점, 주제별)을 모색 해보고 실효적으로 필요한 실천 토대 마련

프로그램①

〈지역문화 공론장 '오픈게더링'〉

주요 방향

[주제 거점형]

- 지역문화, 거버넌스,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을 통해 문화적 솔루션 도출과 프로젝트 진행의 기반 마련
- N개市的을 전반의 소통 창구와 같은 역할로 플랫폼, 기획학교 운영방향의 기반이 될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예, 플랫폼 네트워크 및 프로젝트 진행내용 공유와 협업을 위한 교류, 기획학교 목적 도출 등)

[공간 거점형]

- 공공의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한 반면 민간 문화예술 공간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해 공간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 및 활동 도모를 위한 공론
- 공간, 골목, 마을 단위 강북 지역 민간 공간의 특색을 주제로 예술가,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세부 운영 요약

구분	기간	내용	비고
1~3회	5월 10일 ~12일	여는회의(1~3차) 5년차 N개의서를 강북구 준비를 위한 회의	주제 거점
4회	5월 31일	강북 엔서는 처음이라 강북구 지역문화 신규 참여자 대상 공론장	
5~6회	7월5일, 7월7일	나아가는 공론장(1~2차) 운영체계 및 과정에 관한 공론장	
7회	9월 17일	적당한 관계 민-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공론장 (with 임재춘 컨설턴트)	
8회	22년 1월 4일	또 다시 다음 21년 성과공유와 22년 방향설정에 관한 공론장	
- 상시/사업전체에 관한 전문의견 -			
총 14회	8월 17일~ 11월 23일	강북청년문화네트워크TF 구축 청년예술가들의 지역기반 활동 네트워크 구축체계 마련	지역 거점
총 1회	12월 20일	전문가 의견 N개의서를 및 강북 지역문화 영역 전문가 총평과 제언	

세부 진행
내용

[1~3회차, 여는회의]

일 시 | 5월 10일(월), 11일(화), 13(목) 일자별 19:00 ~ 21:00

장 소 | 나우예술심리연구소(강북구 수유동)

참여자 | 예술가, 기획자, 예술단체, 강북문화재단 등

N개市的을 주요 참여주체 총 21명

주 제 | 5년차 N개市的을 강북구 준비를 위한 회의

내 용 | · 실무/운영/참여 주체 간 역할(PM 역할 및 심의 기준)

· 기획단의 필요 유무성 및 역할

· 2021 N개市的을 서울 사업 방향 및 의견



[4회차, 강북 엔서는 처음이라]

일 시 | 5월 31일(월) 19:00 ~ 21:00

장 소 | 동예술사랑채(강북구 미아동)

참여자 | N개市的을 신규 참여주체 총 10명

주 제 | 강북구 지역문화 사업 신규 참여자 대상 공론장

내 용 | · 2020 신규참여자들의 생각 및 의견공유

·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및 과업

· [강북 클러스터] 앞으로의 방향성



[5~6회차. 나아가는 공론장]

일 시 | 7월 5일(월), 7일(수) 일자별 19:00 ~ 21:00

장 소 | 강북나눔돌봄센터(강북구 수유동)

참여자 | 예술가, 기획자, 예술단체, 강북문화재단 등 N개의서울 주요 참여주체 총 21명

주 제 | 운영체계 및 과정에 관한 공론장

내 용 | ·연간 진행 일정

· 2021 N개의서울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 운영추진체계: 기획단/ 프로그램 운영인력

· 소통 플랫폼 운영: 오픈채팅방, 네이버 카페

5-6회차



[7회차. 적당한 관계]

일 시 | 9월 17일(금) 10:30 ~ 13:30

장 소 | 마을찾집 마주이야기(강북구 수유동)

참여자 | 강북클러스터 기획단 총 10명

주 제 | 민-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공론장

진 행 | 임재춘(N개의서울 컨설턴트)

내 용 |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

·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생각

· 민/관 주체들의 사업 이해와 의견 공유

7회차



[8회차. 또 다시 다음]

일 시 | 1월 4일(화) 14:00 ~ 16:00

장 소 | 카페 시집(강북구 미아동)

참여자 | 강북클러스터 기획단 및 강북문화재단 총 11명

주 제 | 21년 성과공유와 22년 방향설정에 관한 공론장

내 용 | · 2021 N개의서울 강북클러스터 진행내용

· 3개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내용

· 운영 과정, 성과, 향후에 관한 의견 나눔

8회차



[상시운영. 강북청년문화네트워크 TF 구축]

일 시 | 8월 17일 ~ 11월 23일(총 14회)

장 소 | 허브36.5(강북구 미아동) 외 관내 관련 공간

참여자 | 강북 청년예술가TF 6명 외 자문/전문가 등

주 제 | 강북 청년예술인 당사자로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성 논의 등

내 용 | ·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지역의 주체로서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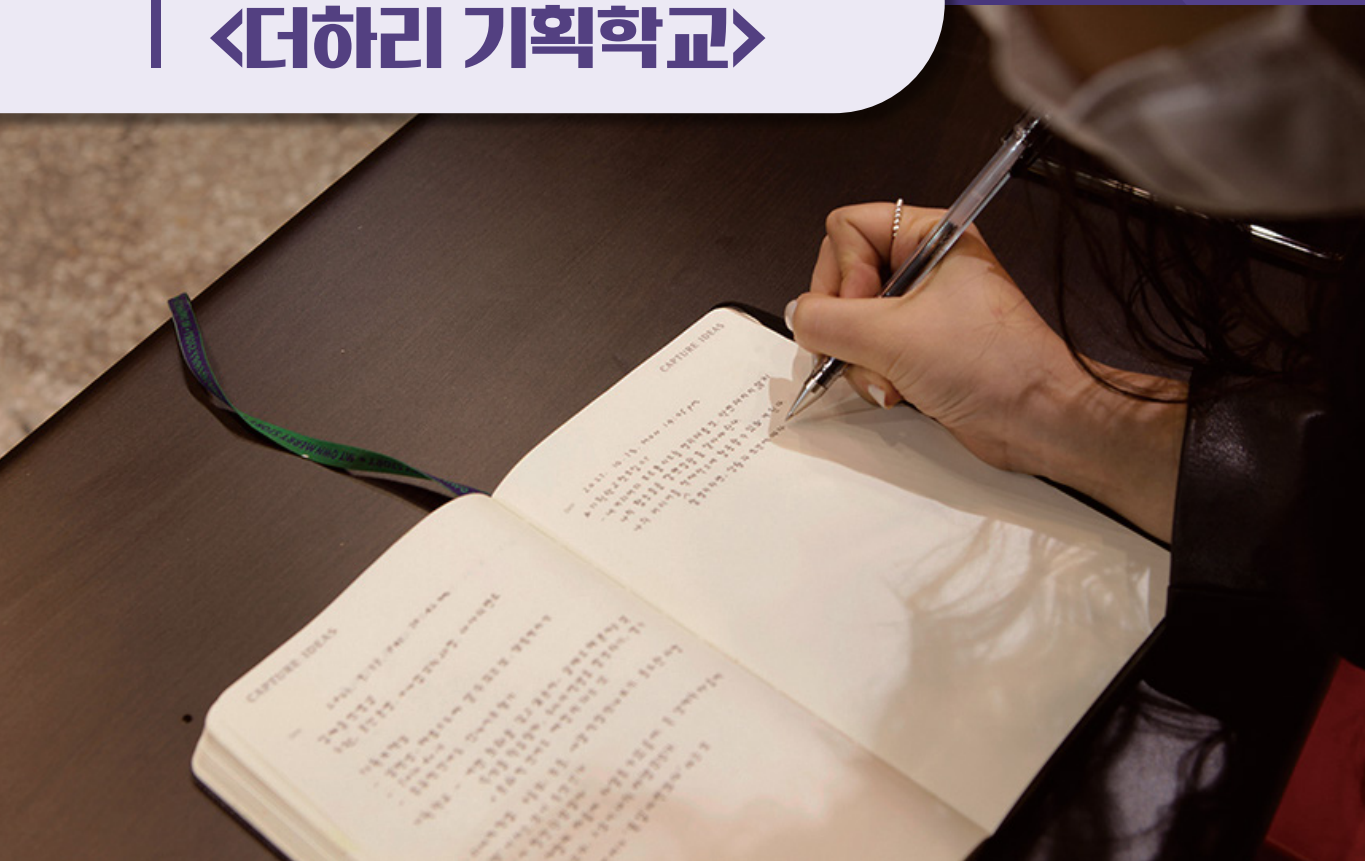
· 관 내/외 다양한 공간 탐방 및 전문가 자문 진행

· 지역기반 활동 지속방법, 공간 및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방법 모색

〈강북청년문화네트워크TF 구축 '교복이'〉



지역문화 기획자 양성과정 〈더하리 기획학교〉



프로그램 개요

기 간 | 10월 18일(월) ~ 12월 20일(월) 매주 월요일 14:00~17:00 (총 10회, 30시수)
 ※ 더하리 기획학교 COP 모임: 12월 말 ~ 22년 1월 중순 (회차 외 별도 운영)
 장 소 | 허브 36.5, BAC 센터, 강북나눔돌봄센터, 온라인 ZOOM, 관외(관악, 강화)
 방 식 | 강북구 일대 온라인 / 오프라인 병행
 참여자 | 강북구 지역문화 기획에 관심있는 예술가, 예비 기획자 등 10명
 강 사 | ·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 김정아 (비커밍컬렉티브/지식에너지연구소 대표)
 · 인재명 (상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 대리)
 · 하정아 (평창문화도시 총괄기획자)
 · 정영석 (처음 시작하는 기획서 작성법 저자)

프로그램②

〈지역문화 기획자 양성과정 '더하리 기획학교'〉

주요 방향

- 지역문화 기획에 관한 총론적 개념교육과 타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강북 지역 문화 이슈에 관한 문화적 솔루션 프로젝트 설계 및 기획과정 학습
 ※ 기획학교 커리큘럼은 지역문화 공론장(오픈 게더링) 및 기획단 논의를 통해 지역 기반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점을 함께 설정함
- 문화기획에 관한 전문가 강의 및 멘토링, 참여자 네트워킹
- '강의/사례/탐색과 기획' 파트로 나누어, 문화기획의 원론적인 강의부터 다양한 문화기획 사례탐색
- 예술가로서 기획자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 모색에 집중하여 '당사자성'을 키워드로 함
- 향후 커리큘럼 주제를 탐색하는 참여자들의 후속 〈더하리 기획학교 cop〉 모임 진행



진행 커리큘럼

항목	회차/일시	세부내용	강사	장소
강의	1회차 10. 18(월)	[첫 만남, 오리엔테이션] - 내 인생의 연대기를 통한 서로 소개하기 - 강사 여는 강의 겸 소개 '무엇이든 들어 보살' - 전체 과정 소개 및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방향 설정	이선철, 참여자	허브 36.5
	2회차 10. 25(월)	[당사자성의 발견 - 기획의 출발, 나] - 문화기획의 출발은 나로부터: 당사자성은 무엇인가? - 당사자와 당사자성의 차이 발견 - 나의 당사자성을 어떤 기획으로 타자와 만날 수 있을까?	김정미	BAC센터
	3회차 11. 1(월)	[문화기획 파헤치기 ①] - (이해) 문화기획이란 무엇일까? - (분야) 예술경영에서 이야기하는 문화기획은 어떤 분야가 있을까?	이선철	허브 36.5
	4회차 11. 8(월)	[문화기획 파헤치기 ②] - 문화기획과 지역의 관계 - 실제 사례로 보는 지역문화기획 - 문화기획의 전략요소		
사례	5회차 11. 15(월)	[지역x문화x기획의 요소①] - 지역자원과 문화의 접점 그리고 기획까지 - 문화기획으로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관광, 체험 등 사례를 통해 바라본 지역문화기획)	하정아	강북나눔 돌봄센터
	6회차 11. 22(월)	[지역x문화x기획의 요소②] - 함께하는 가치, 서울 지역문화 사례(성북구) - 마을공동체, 지역문화 거버넌스	인재명	허브 36.5
탐색과 기획	7회차 11. 29(월)	[기획x기획서x기획자] - '요즘' 기획자의 생각과 작업(법) - '기획자'의 Mining and Cooking	정영석	온라인 ZOOM
	8회차 12. 6(월)	[지역 안과 지역 밖의 문화공간 탐방① - 강북구] - 필요에 의한 문화기획, 세입자 프로젝트 (동네형들, 마을목수 공작단) 사례를 중심으로	박도빈 이상기	
	9회차 12. 13(월)	[지역 안과 지역 밖의 문화공간 탐방② - 성북구] - 지역과 함께 숨쉬는 문화공간 (미인도, 천장산 우회극장, 쌀집)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영 허혜운	허브 36.5
	10회차 12.20(월)	[만담회 & 수료식] - 양성과정을 통한 소회 및 아이디어 만담회 - 고생한 그대에게! 수료식	이선철 참여자	

현장사진



기획학교 기획단 사전 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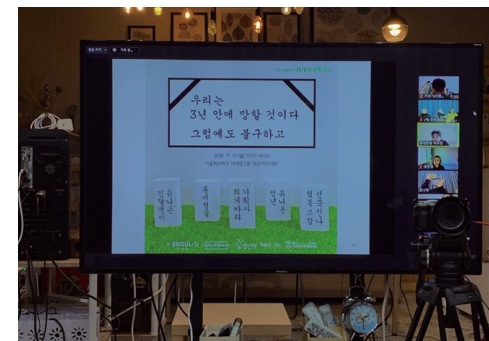
1회차 첫 만남 오리엔테이션



2회차 당사자성의 발견-기획의 출발, 나



5회차 지역x문화x기획의 요소①



9회차 지역 안과 밖의 문화공간 탐방-성북



10회차 만담회&수료식

참여자들의 이야기

■ 더하리 기획학교 참여 동기

- 평소에 예술기획과 각 지역의 특색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지역이 요구하는 예술가의 필요조건에 대해 연구하고, 기획자로서 예술가로서 지역에서 상생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 기획학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전통예술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 지역을 기반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지역 문화예술 활동과 기획에 대한 공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낌
- 예술이 일상 속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삶이 즐거워지는 예술을 기대하고 있음. 나의 예술이 지역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지역주민들과 예술로 소통하고 이슈를 나누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지역 문화예술기획자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 강북의 청년예술가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개인의 꿈과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문화기획을 하고 싶음. 지역의 특수성과 강북의 청년들이 당사자성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획을 해보고자
- 본인이 하는 다양한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문화기획을 하기 위해 지원함

■ 양성과정을 통해 찾은 나의 당사자성

• 참여자A (회화 작가)

[당사자성 찾기]

나를 정의할 필요, 앞으로의 나의 미션,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파악하기 → '마음을 다 한다, 섬세하다'고 정의 내림

[나의 핵심가치 찾기]

진심, 공감, 일상 → 사람들, 누군가에게 내일 그리고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나의 진심이 담긴 작품 및 상품을 통해 사람들이 공감하며 여러 감정을 느끼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람 → "공감, 자연스러움, 섬세한 표현, 신앙"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볼 수 있었음 → 개인 작업 및 문화기획의 키워드로 연결해 볼 수 있었음

• 참여자B (독립기획자, 예술강사)

[노른자-핵심가치]

퍼실리테이터, 매개자, 음악치료사

[흰자-둘러싼 가치]

예술가, 기록자(아카이빙), 기획자, 예술교육 강사, 문화예술 행정가

• 참여자D (공예 작가, 공방 운영)

[노른자-핵심가치]

이야기

[흰자-둘러싼 가치]

관계, 호기심, 관심, 진심, 열정, 연륜, 경험, 경력, 디자인, 공예, 작가, 교육, 문화 예술, 기획, 재미, 새로움, 이로움, 같이, 가치, 되살림, 지속 가능

• 참여자E (국악 연주자, 예술강사)

지금까지 자신을 형용하는 것은 국악전공자, 예술강사, 해금연주자, 6살 아이 엄마였다. 이 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환경, 건강, 육아, 지역에서 예술가들과의 소통과 연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장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불러주는 공연에 수동적인 플레이어로 참여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체성을 가지고자 한다. 어떤 것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문화기획자로서 역할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 참여자F (무용, 다원예술)

나의 코어는 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당사자성에 대해 고민하며 무용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예술창작'이 나의 핵심 가치라 생각된다. 타인과 소통하는 창작으로 타인을 향한 창작을 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인 작업을 하려 한다. 공간, 유희공간에 대한 이슈를 다룬 내용이 인상 깊었다.

I 강북 일상문화 플랫폼



프로그램 개요

기 간 | 9월 ~ 12월

장 소 | 강북구 전역

방 식 |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및 프로젝트 진행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예술장르를 구분한 네트워킹 플랫폼이 아닌, 관심분야, 활동영역, 문화적 생활 양식 등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플랫폼 네트워킹 활동 지원
- 플랫폼별 네트워킹을 넘어 플랫폼 간 협력, 주민과의 교류 등 활동영역 확장 지역기반 프로젝트 활동 지원

프로그램③

<강북 일상문화 플랫폼>

세부 운영 요약

회차/일시	세부내용	강사	비고
플랫폼 운영논의 (기획단)	8월3주 ~ 9월 4주	플랫폼 지원체계 논의	
		플랫폼 모집공고 준비	
		플랫폼 공고 게시	
	10월 1주	프로젝트 분야 플랫폼 설명 및 간담회	
	10월 2주	네트워크 분야 플랫폼 오리엔테이션 및 활동시작	
	10월 3주	프로젝트 분야 플랫폼 매칭을 위한 간담회	
	10월~12월	프로젝트 분야 플랫폼 간 매칭 5팀 확정 및 활동 시작	
	12월 1주~3주	플랫폼 진행현장 모니터링 및 진행상황 공유	
네트워크 플랫폼	12월 4주	프로젝트분야 플랫폼 페스티벌 진행	
		네트워크/프로젝트 플랫폼 활동 마무리	
	10~12월	[미아리 탐험기] 미아동 산책과 아카이빙	
		[밤 친구들] 밤과 별을 소재로 생태계와 생활영역에 관한 탐색	
		[첫눈앓] 시낭송을 통해 나누는 일상	
프로젝트 플랫폼 (페스티벌)		[재미난 사물놀이] 전통문화(사물놀이)에 관한 이야기와 활동 공유	
	12월 4일	[시와 음악의 콘서트'같이.따로.화합'] 시낭송과 음악이 어우러진 콜라보 공연	
	12월 12일	[예술에 위로를 담다'예위담'] 공공미술 커뮤니티 아트 설치미술과 주민소통	
	12월 18일	[힐링과 위로 무대'할머니의 거울'] 웃음과 감동, 흥겨움으로 살아온 날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뮤지컬 갈라쇼	
	12월 18일	곽정지X유미애[소극장용 프로젝트 맵핑 연구] 소극장 프로젝트 맵핑에 관한 연구, 발표	
	12월 19일	김덕원X최애지[12월의 영상 상영회] 엘로우바스켓에서 영상 상영회	

네트워크 플랫폼 소개

[미아리 탐험기]

일 시 | 11월 (총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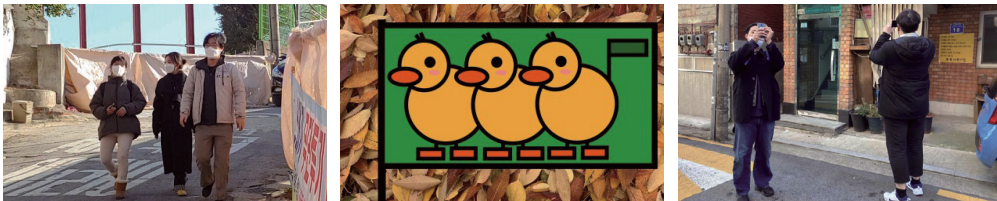
장 소 | 강북구 미아동 일대

참 여 자 | 김영준, 김은우, 서유진, 이영우, 정지선, 정지영, 최혜정 / 7명

활동분야 | 운영체계 및 과정에 관한 공론장

내 용 | · **(미아리 탐험기)** 진행자 김영준(미미)가 나고 자라온 동네인 미아동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공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일상의 흔적 아카이빙
· **(이미지 표류기)** 외부 지역 손님을 불러 진행자와 시선을 공유하며 평상시 볼 수 없던 도시의 일상적 흔적을 마주하는 시간

〈미아리 탐험기〉 플랫폼



[밤친구들]

일 시 | 11월 ~ 12월 (총 5회)

장 소 | 강북구 일대 및 송암아트스페이스(경기도 남양주)

참 여 자 | 민경희, 박소영, 송민정, 이유지, 이현미 / 5명

활동분야 | 생태, 문화예술

내 용 | · 밤과 별을 소재로 생태계와 생활 영역에 대한 탐색
· 동네 밤산책과 별관찰, 환경오염과 업사이클링 활동 모색

〈밤친구들〉 플랫폼



[첫눈앓]

일 시 | 11월 (총 4회)

장 소 | 다정도 병인양 등 강북구 일대 카페

참 여 자 | 권경희, 박정규, 오명석, 유광중, 여현옥, 이영애, 이옥자 / 7명

활동분야 | 시낭송, 시창작

내 용 | · 시낭송을 통한 일상 공유 네트워크
· 시낭송 역량강화를 통해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작 준비

〈첫눈앓〉 플랫폼



[재미난 사물놀이]

일 시 | 10월 ~ 12월 (총 4회)

장 소 | 한누리 예술단(강북구 인수동)

참 여 자 | 진행자 김진환 외 / 8명

활동분야 | 전통예술, 국악, 사물놀이

내 용 | · 전통문화와 사물놀이에 관한 이야기, 네트워크
· 사물놀이 활동과 여러 전통 예술장르의 활동공유

〈재미난 사물놀이〉 플랫폼



프로젝트 플랫폼 소개

[프로젝트 협업 플랫폼 매칭 간담회]

일 시 | 10월 15일(금) 14:00~16:00

장 소 | 솔밭국악당

참 여 자 | 프로젝트 플랫폼 대표제안자, 실무자 등 13명

주 제 | N년차 참여 플랫폼 대상 협업 프로젝트 플랫폼 매칭

내 용 | · [우리함께 공연해요], [알쓸신잡], [웹아트 드라마], [공미줄], [우리뿌리 찾기],
[강북의 NFA], [파티플레이M], [청년들이여 문화예술에 빠져보자], [해고배]
· N년차 네트워크 플랫폼에 참여한 팀 간 소개 및 협업 프로젝트 제안과 매칭

〈프로젝트 협업 플랫폼 매칭간담회〉



〈결과 영상〉

[소극장용 프로젝션 맵핑 연구]

일 시 | 10월 ~ 12월

장 소 | 동예술 사랑채, 한누리예술협회

참 여 자 | 광정자, 유미애, 라영란, 박은아, 정세영, 이동규, 류상목, 신승민 / 8명

주 제 | 소극장용 프로젝션 맵핑 활용을 위한 연구

내 용 | · 전통 춤+창작곡+프로젝션 맵핑 연구 및 실행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
· 공간 크기 등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연출기법 활용을 위한 연구

〈소극장용 프로젝션 맵핑 연구〉 플랫폼



〈결과 영상〉

[12월 영상 상영회]

일 시 | 10월 ~ 12월

장 소 | 우이에술인 마을, 옐로우 바스켓

참 여 자 | 김덕원, 최애지, 박소영, 최지운, 김현호, 구경희, 이애현, 라영란 / 8명

주 제 | 미래언어인 영상 매체를 통한 지역예술인간 협업

내 용 | · 인형극 x 웹아트 드라마 작업 간의 협업 프로젝트
· 웹드라마, 영상 인형극 제작 및 영상회 개최

〈12월 영상 상영회〉 플랫폼



〈결과 영상〉

[오선지에 그려진 시와 음악의 하모니]

일 시 | 10월~12월

장 소 | 디앤씨 뮤직스튜디오

참 여 자 | 여현옥, 이경선, 유광중, 이현정, 차진숙, 박경숙, 조용자, 김승현, 이위순 / 9명

활동분야 | 전통예술, 국악, 사물놀이

내 용 | · 음악과 시의 콜라보를 통해서 연주자들과 시를 쓰는 시낭송가들의 협업 무대
· 오선지에 그려진 시와 음악의 하모니 프로젝트

〈오선지에 그려진 시와 음악의 하모니〉 플랫폼





〈결과 영상〉

[예술에 위로를 담다: 예위담]

기 간 | 10월 ~ 12월

장 소 | 강북시장 내 삼거리 외 강북구 일대

참 여 자 | 박미숙, 김대환, 김희경, 나종이, 정혜선, 박지호, 김경아, 김종민 / 8명

주 제 | 공공미술,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활성화

내 용 | · 공공미술 구현 가능 및 조명이 필요한 지역 장소 발굴
· 도자기 종으로 구성된 대형 트리 설치 및 주민 커뮤니티 퍼포먼스 프로젝트

〈예술에 위로를 담다: 예위담〉 플랫폼



[할머니의 거울 - 음악과 연극 그리고 치유공연 & 갈라쇼]

기 간 | 10월 ~ 12월

장 소 | 도란도란 마을극장, 솔밭국악당 외 강북구 일대

참 여 자 | 강승호, 천중현, 유혁상, 황다혜, 오현석, 박향숙, 유명란, 이유자, 여유진, 나주희, 박종수, 엄덕환, 심은보 / 13명

주 제 | 소통의 부재로 겪는 세대갈등 해결을 주제로 한 갈라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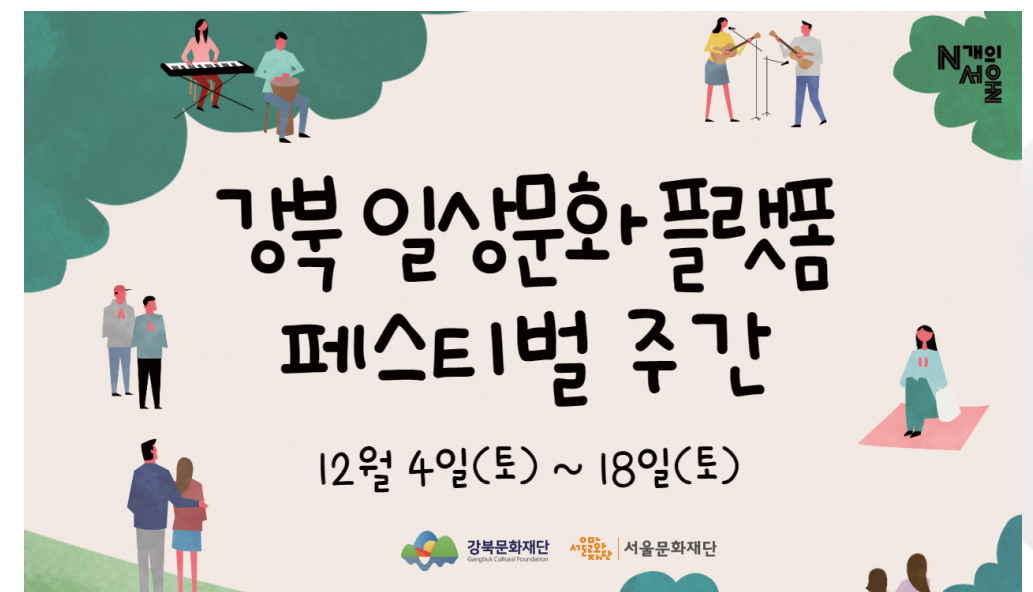
내 용 | · 개그와 뮤지컬 갈라쇼의 흐름으로 어우러진 공연
· 청년x중년 예술가들의 세대간 협력 프로젝트

〈할머니의 거울〉 플랫폼



강북일상문화플랫폼 페스티벌 주간 요약

Day	프로젝트 명	콜라보 플랫폼	일시	장소	진행내용
Day.1	시와 음악의 콘서트 (같이, 따로, 화합)	우리함께 공연해요x 해와 달의 고삐를 쥐고	12월4일(토) 15:00~17:00	디앤씨 뮤직스튜디오	시낭송과 음악이 어우러진 콜라보 공연
Day.2	예술에 위로를 담다: 예위담	공공미술 즐기기X 알쓸진잡	12월12일(일) 13:00~15:00	강북종합시장 일대	주민참여형 공공미술 장소성에 관함 실험. 지역에서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장소 발굴, 주민참여 커뮤니티 퍼포먼스
Day.3	플랫폼 결과발표	우리뿌리찾기X 강북의NFA	12월18일(토) 15:00~17:00	한누리 예술협회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연출기법을 위한 소극장용 프로젝션 맵핑 연구와 발표공유
	힐링과 위로 무대 (할머니의 거울)	청년들이여 문화예술에 빠져보자X 예맘	12월18일(토) 18:00~19:00	솔밭국악당	지역 청년x중년 예술가들의 협업 작품 살아온 날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뮤지컬 갈라쇼
Day.4	12월의 영상 상영회	웹아트드라마X 파티플레이M	12월19일(일) 16:00~19:00	엘로우 바스켓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웹드라마, 인형극 제작 결과 영상 상영회



2021 N개의서울 〈강북 클러스터〉성과공유회

기획단 및 프로그램 PM, 실무자 성과공유회의 중

플랫폼PM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플랫폼의 주요 목표로 삼고 기획단은 최소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작품들이 퀄리티가 높아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선보이고 싶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여 너무 아쉬웠습니다.(중략) 프로젝트 신규 운영을 해보니 작년보다 훨씬 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플랫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학교PM 작년에 다른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고, 참여자들이 예술가, 기획자, 공간운영자로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스스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내년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움직임이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COP모임을 통해 더욱 발전된 기획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 기대해주시면 좋겠다.

플랫폼PM 과정 중에 아쉬웠던 것은 부족한 시간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올해는 특히 전투적인 회의를 통해 운영에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다. 올해는 기존 참여 플랫폼들에게 집중하여 연대와 결속력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2022년에는 예산을 더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유기적으로 언제든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싶다.

기획단A 이번 프로젝트에 플랫폼 활동이 좋았던 점은,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틀에 맞추어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면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활동을 하게 되어 굉장히 좋다. 특히 예술인으로서, 기획자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예술인이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대한다.

기획단B 기획학교, 플랫폼 프로그램을 다 참여했다. 기획학교의 경우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마지막 PT 공유를 할 때, 청년들을 보며 나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 너무 공감이 되고 울컥했던 시간이었다. 2022년에는 서로 교류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획단C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서로 협업의 자체가 행복했고, 코로나 이긴 하지만 예술가와 주민들도 함께 만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서 참 좋았다. 일반 관객들이 재단의 존재를 모르는 부분이 아쉬웠고, 올해와 같은 활동들이 활발해져 재단의 활동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를 연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

기획단D 기획학교를 참여 하면서 나의 존재와 당사자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이전까지는 나의 역할들이 보통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기획하고 딱딱한 느낌의 과정들이었다. 이번 네트워킹 플랫폼에 참여하면서 순수하게 성취해야할 목적없이 하고싶은 활동을 펼쳐보고 구성원들과 이야기 나누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기획단E 참여해보니까 좋았고, 질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N개의 서울을 참여해보면서 소외된 예술가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다.

플랫폼PM 기획단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기획단들이 더 주체적인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부터 사업 설계까지 더욱 영향력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단계가 지나면 하반기에는 운영단을 꾸려 더 유연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기획단F 기획단은 사업 초반에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참여 하기 힘든 소외된 사람, 공간 등을 발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획단B 새로운 예술가들이 손을 들었을 때, 손잡아 주는 정도의 발굴이 되면 좋겠다. 그에 대한 플랫폼 역할, 발굴의 역할 등은 재단과 주요 참여 주체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 좋은 이야기들 감사하고, 서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자연스레 놓여진 방향부터 하나씩 나아가면 될 것 같다. 모두 2021 〈강북클러스터〉운영동안 고생하셨고, 22년 사업으로 이어 만나뵙는 자리 갖도록 하겠다.

2021 N개의서울 <강북 클러스터> 전문가 총평 및 제언

— 지역문화 및 기획자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강북에 문화를 더하다



이선철
(더하리 기획학교 총괄 기획 및 강사)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지역마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 또는 활성화라는 이름아래 이루어지는 많은 시도는, 과거 개발 위주 시대에 강조되었던 경제적 측면 못지않게 다양한 영역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 교육, 환경 등과 함께 문화도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문화는 그 지역의 전통이나 예술 나아가 생활의 측면까지 아우르며 지역 발전의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은 이제 지방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중앙과 주변이라는 도식에서 각자의 정체성과 동력을 가진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에 독자적인 행보와 전략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수도나 대도시에서는 과거 큰 범주 내에서의 한 장소적 속성으로 아우르는 “시”가 아닌 25개 자치구의 독자적이며 독창적인 전략과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런 면에서 지역과 문화의 긴밀한 상관관계가 중요해졌고, 문화의 속성과 지역의 특성이 어우러져 진정한 지역문화의 진흥을 꾀하게 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각 지자체는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정책의 영역에 많은 파트너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 지방문화원이나 문화의집 등이 해왔던 고전적 영역을 존중하며 나아가 전문예술, 생활문화 그리고 지역문화 정책과 현장의 매개자로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문화재단은 정부와 민간, 행정과 문화, 공공과 시장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과거 문화진흥, 문화융성 등의 슬로건을 넘어 이제는 창의문화, 문화도시, 도시재생 등의 영역까지 아우르며 더욱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바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기획인력의 양성이다. 어느 분야가 발전하려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큰 예산이 조성되어도 이를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지역에서도 예술가 못지않게 매개자, 교육자, 기획자 등의 기획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여기에 단순한 향유자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와 창작의 의지가 높은 주민 역시 지역문화 활성화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제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최근 대학의 학과나 각종 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풍성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탄탄한 지역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춤형 커리큘럼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의 기획 주체가 공동으로 학습하고, 현재 우리 지역과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현장 사례를 학습의 도구로 삼는 유기적이고 입체적이며 실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강북문화재단의 더하리 기획학교는 지역의 문화재단이 철학을 가지고 준비한 학습공동체의 최적화 모델이라 생각한다.

2021 N개의서울 〈강북 클러스터〉 함께한 사람들

프 로 그 램 P M 원나래 송민석

기 획 단 광정자 김희경 민경희 박미숙 박향숙 송민정 조서울 차진숙

더 하 리 기 획 학 교 광정자 김경화 김지연 민경희 양해광 이강산 이동규 이유지 정세영 조서울

강북일상문화플랫폼 [네트워크 분야]

미아리 탐험기 김영준 김은우 서유진 이영우 정지선 정지영 최혜정

밤친구들 민경희 박소영 송민정 이유지 이현미

첫눈앓 권경희 박정규 오명석 유광종 여현옥 이영애 이옥자

재미난 사물놀이 김진환 유미애 이동규 외5명

[프로젝트 분야]

소극장용 프로젝트 맵핑연구 광정자 유미애 라영란 박은아 정세영 이도규 류상목 신승민

12월 영상 상영회 김덕원 최애지 박소영 최지운 김현호 구경희 이애현 라영란

오션지에 그려진 시와 음악의 하모니 여현옥 이경선 유광종 이현정 차진숙 박경숙 조용자

김승현 이위순

예술에 위로를 담다: 예위담 박미숙 김대환 김희경 나종이 정혜선 박지호 김경아 김종민

할머니의 겨울 강승호 천종현 우혁상 황다혜 오현석 박향숙 유명란 이유자 여유진 나주희

박종수 엄덕환 심은보

자 문 / 전 문 가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동네형들 박도빈

마을목수공작단 이상기

N개의서울 컨설턴트 임재춘

비커밍콜레티브 김정미

독립기획자 하정아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인재명

기획 컨설턴트 정영석

성북 미인도 이민영

성북 천장산우회극장, 쌀집 허혜윤

‘이 밖에 2021년 N개의서울 〈강북클러스터〉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 N개의서울 〈강북 클러스터〉 성과 요약 & 아카이빙

8개월 간 3개 프로그램, 74회 진행
예술가/전문가 256명, 주체 187명 참여

프로그램①

지역문화 공론장
〈오픈게더링〉

8개월 간, 23회 진행

예술가/전문가 115명

주체 58명 참여

프로그램②

강북 일상문화
플랫폼

4개월 간, 41회 진행

예술가/전문가 127명

주체 105명 참여

프로그램③

지역문화 기획자
역량 강화

3개월 간, 10회 진행

예술가/전문가 14명

주체 24명 참여



강북문화재단 유튜브 공식채널
〈강북클러스터〉 아카이빙 영상

문화로 상생, 예술로 소통 프로젝트
[강북 문화예술 플랫폼]

02

강북 생활문화 플랫폼 〈예술마을〉

2021 강북 생활문화 플랫폼 〈예술마을〉

강북구 생활문화 발자취

강북 생활문화 플랫폼 〈예술마을〉 사업 소개

「예술공간 마실가기」 4가지 프로그램

「슬기로운 마스터클래스」 참여 동아리 소개

강북에서 뭐하니 Vol.2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제언



강북구 생활문화 발자취

생활문화 단계별 로드맵

단계	내용
1단계 (2018년~2019년)	[키워드 : 발굴, 연결] - 지역의 다양한 지역문화자원 실태조사 및 발굴 - 분야별 네트워킹, 연합공연 등을 통한 자원 연계 네트워크 형성
2단계 (2020년~2021년)	[키워드 : 확장, 콜라보] - 생활문화 주제 범위 확장과 생활문화 공간을 거점으로 새로운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 생활문화 공간, 생활문화 활동가, 생활문화 동아리의 네트워크 확장
3단계 (2022년~2023년)	[키워드 : 거버넌스, 일상문화] - 생활문화 활동영역 확대를 통한 시민의 일상 생활문화 확대 기반 마련

사업 방향

(확장) 참여 주체 및 생활문화 활동 범주 확장성

- 대상) 생활문화 동아리, 동호회 → 일반 시민, 생활문화 활동가, 생활문화 동아리, 생활문화 공간 운영자 등으로 확장
- 방식) 동아리, 동호회 발표 중심 →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생활문화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주체) 서울시-강북구-강북문화재단의 수직적 구조 → 참여 주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 주도형 사업 구조로 변화

(기반구축) 생활문화 활동가 운영 및 민간 생활문화 공간 플랫폼 구축

- 사람)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가를 운영하여 재단과 생활문화 주체들의 매개자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기회 제공
- 공간) 자치구 공공 공간 외 민간이 운영하는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을 발굴하고 공간 대표자가 참여 주체가 되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 및 공간 간 네트워크 구축

2021 강북 생활문화 플랫폼 <예술마을> 기획 의도 및 사업소개

기획 의도

- 강북구 내 자율적 문화예술 공간을 발굴하여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 강북구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예술가 발굴
- 일상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나가는 문화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내용

- 강북구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생적 생활문화 환경 마련
- 동아리 활동 지원 중심에서 생활문화 공간을 활용한 확장성으로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참여주체가 직접 참여하고 실행하는 건강한 생활문화 생태계 구축

프로그램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 「예술공간 마실가기」

- 강북구 내 4곳의 민간 생활문화 공간에서 강북구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 동아리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 「슬기로운 마스터클래스」

- 강북구 기반의 생활문화 동아리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 네트워크 운영 - 「강북에서 뭐하니 Vol.2」

-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력-공간, 공간-공간 네트워크 회의

〈예술공간 마실가기〉 토기장이의 집 - 8人8色 도자기 교실

공간소개 및 대표 소개

도예공방 토기장이의 집

- 도예공방 토기장이의 집은 작품 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도예수업과 주문 제작 및 문화 기획을 하는 공방으로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윤경순

- 윤경순 대표님은 도예가이자 도예강사로 지역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흙을 빚으며 삶을 빛고 나누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강북구에서 오랫동안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8명의 도예작가들과 8가지 작품세계 속에서

흙을 만지고 몸소 다양한 도자기를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회차	반	날짜	내용	참여 예술인
1	A반	9/4(토)	과반 만들기	김희경 <루나 스튜디오>
2		9/11(토)	접시 만들기	김선애 <김선애공방>
3		10/2(토)	화병 만들기	인정심 <행복한 도자기>
4		10/9(토)	핸드 페인팅 (커피잔 세트)	윤경순 <토기장이의 집>
5	B반	10/16(토)	도판에 우리집 가훈 만들기	박유정 <교사, 도예작가>
6		10/23(토)	캔들 라이트 만들기	이영숙 <토아공방>
7		10/30(토)	새 만들기	이옥환 <흙사랑 도예교실>
8		11/6(토)	연리문 접시 만들기	신상엽 <토기장이의 집>

「8人8色 도자기 교실」 프로그램 사진



〈예술공간 마실가기〉 돔예술 사랑채 - Play, Art Space

공간소개 및 대표 소개

돔예술 사랑채

· 돔예술 사랑채는 예술로 힐링하는 공간입니다. 일반인들과 전문 예술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문화예술 공간이며 생활 속에서 예술로 힐링하고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걱정자

· 걱정자 대표님은 에어리얼댄스, 무용, 음악, 연극을 활용한 다원예술로 공연제작, 문화기획, 예술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입니다. 2020년부터 강북문화재단과의 인연을 통해 강북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누구나 예술적인 DNA는 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상상의 Art Space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상상만 했던 자신만의 예술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부캐가 깨어난다.

회차	날짜	내용	참여 예술인
1	9/6(월)	자신의 안에 부캐를 찾아라 페르소나(가면) 만들기, 이야기 풀어내기	걱정자, 라영란, 이동규
2	9/13(월)		
3	9/27(월)		
4	10/2(토)	부캐들의 한여름 밤 이야기 - 이야기 장면 만들기 - 무용, 음악, 연기, 에어리얼	걱정자, 라영란, 백선관, 박은아
5	10/16(토)		
6	10/18(월)		
7	10/25(월)	한여름 밤 예술로 파티를 위한 준비 공연준비	걱정자, 라영란, 백선관, 박은아, 이동규
8	11/1(월)		
9	11/8(월)		
10	11/15(월)	한여름 밤 예술로 파티하기 소공연	

「Play, Art Space」 프로그램 사진



〈예술공간 마실가기〉 그리다 꿈 공방 · 힐링 크래프트 프로젝트

공간소개 및 대표 소개

그리다 꿈 공방

- 그린(Green) : 자연에서 허락된 소재를 되도록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작업하여 자연 생태계 순환을 따릅니다.
- 일상 : 우리네 삶에 이롭고 쓸모 있는 작업을 합니다.
- 공예 : 전통적 가치와 수작업을 존중합니다.
- 디자인 : 창의성, 작가성을 지향합니다.
- 그리다 : 자연활동도 우리네 마음도 순수했던 그 때를 그리워하며 오늘의 우리 일상을 충실히 그려가면서, 내일의 꿈도 함께 그려봅니다.

대표자 민경희

- 민경희 대표님은 디자인을 전공, 30년간 기업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하였고 이후, 자연에서 허락된 여러 가지 소재로 전 과정 수공예 기법으로 작업하며 그 작업물들이 때가 되면 바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우리 삶에 이로운 공예 작품 활동 및 브랜드 기획, 문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친환경 가족에 또 다른 자연 소재를 더하여, 색다르고 재미있는 수작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갖고, 쓸모 있고 색깔이 있는 친환경적 일상 소품을 창작하는 예술작업 체험을 통해 그간의 지쳐있던 삶을 회복해 나간다.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 1. ‘Oldes But Goodies’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	각자의 추억이 있거나 오래되어도 버리지 못하는 옷을 친환경 가족과 매칭하여 예술감각과 실용가치 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새로운 가방으로 재탄생하는 작업
프로젝트 2. ‘Art Caff’ (예술 다방)	친환경 가족에 커피로 염색하고 전기인두로 그림을 그리는 커피향 가득한 홈 카페용 소품 작업
프로젝트 3. ‘The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	지역의 목공작업실과 연계하여 자투리 나무로 만든 손잡이와 장식을 친환경 가족에 매칭하는 독특한 가방 겸 수납용품 작업

「힐링크래프트 프로젝트」 프로그램 사진

프로젝트 1. ‘Oldies But Goodies’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



프로젝트 2. ‘Art Caff’ (예술 다방)



프로젝트 3. ‘The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



결과물



〈예술공간 마실가기〉 싸롱드비 - 음악과 동네 인문학

공간소개 및 대표 소개

싸롱드비(Slon de B)

싸롱드비는 book, beer, band, B급감성이 넘치는 곳이자 다양한 문화가 공존, 난립, 표출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대표자 최찬욱

· 최찬욱 대표님은 싸롱드비 주인장 4명 중 1명으로, 밴드 낭만브로 기타리스트이자 웨이브 컬렉션 음악 스튜디오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싸롱드비가 준비한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회차	날짜	내용	참여 예술인
1	9/29(수)	격동과 애환의 한국 가요사	최찬욱
2	10/6(수)	안기정이 주목한, 흑인대중음악사의 결정적 장면들	안기정
3	10/13(수)	Live in 싸롱드비 1. - 노수환, 안기정의 기타와 장구 놀이	
4	10/20(수)	우리 동네의 음악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의 소개와 이야기. 싸롱드비에서 발매한 우리동네 뮤지션들의 음악 감상.	이흥찬
5	10/27(수)	진정한 저항과 진정한 낭만의 끝. 포크뮤직(Folk)을 만지다.	심한기
6	11/3(수)	Live in 싸롱드비 2. - 낭만브로	

「음악과 동네 인문학」 프로그램 사진



Live in 싸롱드비 1



Live in 싸롱드비 2

〈슬기로운 마스터클래스〉 참여 동아리 소개

동아리 이름	우리 춤 사랑 (대표 : 유미애)
동아리 소개	외국문화에 밀려서 우리 전통은 재미없고, 이해하기 어렵다란 인식을 우리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지켜야 할 유산인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우리 춤 배우기 및 공연



동아리 이름	위드 (대표 : 차진숙)
동아리 소개	생활 악기인들이 모여서 실력을 쌓으며 디앤씨뮤직스튜디오에서 생활악기 (오카리나, 팬플룻, 우쿠렐레)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생활악기(오카리나, 팬플룻, 우쿠렐레)인들이 함께 모여 연주 연습



동아리 이름	이음줄 (대표 : 김수현)
동아리 소개	강북구 생활문화 거점 공간인 이음줄 진흥원에서 모여 다양한 밴드음악, 합창 등에서 활동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5인조 밴드 대중음악



동아리 이름	엄마가 쓰아올린 공연 (대표 : 김예정)
동아리 소개	마을 안에서 아이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얻는 주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인성과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지식 습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극에서 주는 메시지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보기를 위하여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비대면 공연을 위한 편집 기술, 촬영 기술에 대한 이해와 실습



동아리 이름	빨래골 유랑단 (대표 : 김홍녀)
동아리 소개	빨래골 유랑단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던 남사당패, 서커스단, 유랑단의 형태를 이어받아 마당극과 풍물 등을 중심으로 지역 순회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 풍물 : 삼채, 세마치, 오방진, 진오방진 등 풍물 기본 공연을 위한 연습 진행 - 마당극 : 참여자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빨래골 유랑단'이란 제목으로 마당극을 만들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능한 낭독극 공연



〈강북에서 뭐하니 Vol.2〉 네트워크 모임

1차

일시/장소 8/31(화) 17:00~19:00 / 돔예술사랑채
참여자 공간 운영자 4명, 생활문화 PM, 재단 담당자
내용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회의 및 모니터링 관련 회의

2차

일시/장소 9/24(금) 17:00~19:30 / 그리다 꿈 공방
참여자 공간 운영자 4명, 생활문화 PM, 재단 담당자
내용 생활문화 프로그램 진행사항 관련 회의 및 개선사항 논의

3차

일시/장소 10/27(수) 16:00~18:00 / 싸롱드비
참여자 공간 운영자 4명, 생활문화 PM, 재단 담당자 2명
내용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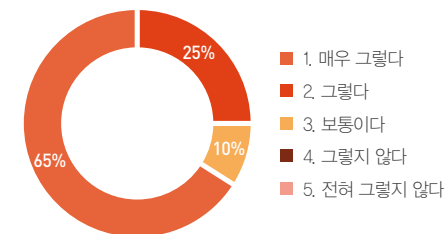
4차

일시/장소 11/24(수) 14:00~16:00 / 강북구 일대
참여자 공간 운영자 4명, 생활문화 PM, 재단 담당자
내용 생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2021년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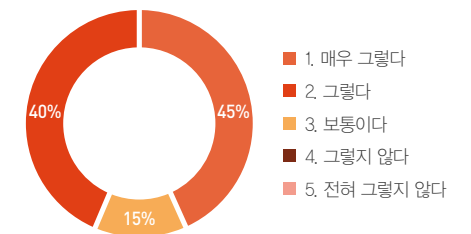


2021 〈강북 생활문화 플랫폼〉 참여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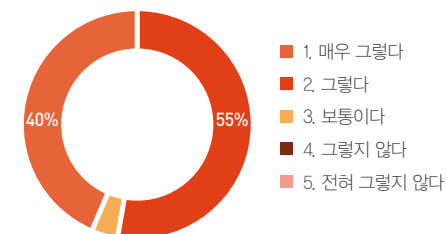
Q. 생활문화 활동의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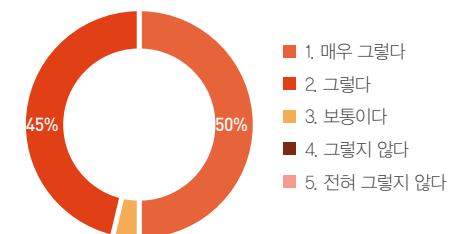
Q. 생활의 여유와 만족감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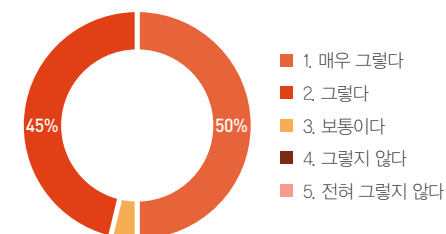
Q. 새로운 장르의 문화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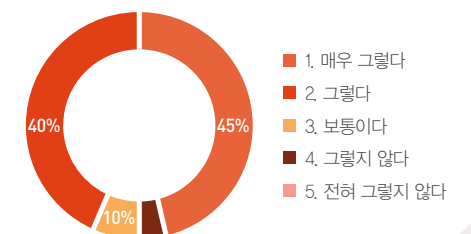
Q.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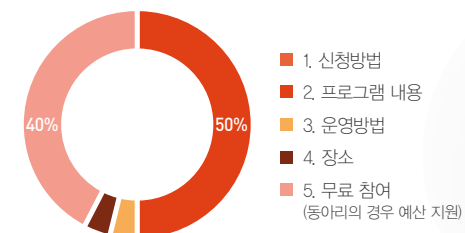
Q. 생활문화에 대한 동기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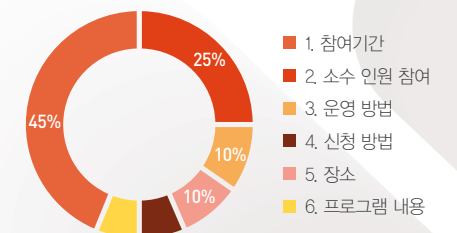
Q. 프로그램 참여과정의 원활함



Q. 가장 만족한 부분



Q. 가장 아쉬운 부분



2021 강북 생활문화 플랫폼 〈예술마을〉 함께한 사람들

연도별 생활문화 지원사업



2021년 생활문화 지원사업 성과



함께한 사람들

- 프로그램 PM 양해광
- 참여공간 : 토기장이의 집, 동예술 사랑채, 그리다 꿈 공방, 싸롱드비
- 참여동아리 : 우리춤사랑, 위드, 이음줄, 엄마가 쓰아올린 공연, 빨래굴 유량단

2021 강북 생활문화 플랫폼 〈예술마을〉 성과평가 (심한기 대표님 제언)

서울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심한기

강북구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위한 제언
“스며들며 뿌리내리는 생활문화를 위하여”

2017년 출범한 강북문화재단은 이제 유아기를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지양과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기초문화재단의 유형은 공연 및 전시, 도서관, 축제, 지역 문화활성화 등의 형태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강북문화재단은 도서관 영역을 제외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 강북구의 상황과 특징 등을 고려하면 지역문화 특히 생활문화 활성화는 강북문화재단이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정체성과도 연결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설립 초기(2018년)부터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 볼 수 있다.

강북문화재단이 추진한 생활문화 지원사업의 흐름을 보면 조사원 및 FA를 통한 강북구 기반의 생활문화예술인 및 생활문화 동아리 발굴 조사를 목표로 하여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총 74개 동아리 발굴하였고 이외 강북구 내 예술인과 생활문화예술인의 발굴, 민간중심으로 운영되는 생활문화 공간 등을 발굴하여 생활문화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기본적 과정을 추진해왔다. 또한 2020년은 동아리 중심이 아닌 생활문화주체의 확장을 중심으로 단체 외에도 개인 생활문화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들을 만들어왔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강북문화재단은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생활문화 동아리는 물론 생활문화를 연결하는 공간의 발굴과 함께 생활문화의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초문화재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서의 과정이기도 하다.

앞으로 강북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접근은 ‘시민으로서의 문화주체’의 발굴, 연결, 확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생활문화 동아리와 공간의 발굴과 연결을 넘어설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과 시도가 필요하다. 즉 공식적이고 계획적 사업이나 활동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뿌리내릴 수 있는 문화주체들의 발굴과 연결과 확산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강북문화재단은 물론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공간, 사람, 이야기)들과의 관계와 연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강북문화재단이 움직이지 않는 ‘공공의 바위’가 되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이 유연하고 수평적인 문화적 태도와 실천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03

강북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곳곳〉

2021 강북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곳곳〉

강북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곳곳〉 사업 소개

「라운드테이블-곳곳」

「예술교육가 양성과정-Gae모임-」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총평/제언 및 함께한 사람들

아카이빙 영상



2021강북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곳곳〉

강북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발자취

단계	내용
1단계 (2020년도)	- 기초단위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 현장연구 진행 - 지역 기반 활동 예술가 현장 공동연구원(2명) 진행에 따른 현장 밀착형 연구 진행 - F.G.I 13개 단체, 총 39명 참여 / 전문가 자문 총 4회, 16명 참여
2단계 (2021년도)	- 강북문화재단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첫 시작으로, 지역 주체들의 예술교육 이해 및 관심도, 의견수렴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 - 인적자원 다양화를 위한 예술교육가 양성과정 운영으로 향후 협력체계 발판 마련 - 총 2개 프로그램, 2회 운영, 190명 전문가/참여자
3단계 (2022년도)	- 지역기반 예술교육 인식확산을 위한 주민/운영주체 그룹별 프로그램 운영 - 21년도 발굴 자원과 연속적 성장을 위한 기회 마련(공동기획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

사업 목적 및 방향

- 지역특성에 기반한 기초(지역)단위 예술교육 운영의 필요성 점검 및 방향설정을 위한 지역 자원(사람, 공간 등) 현황, 요구 실태 파악
- 2020년 [강북구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현장연구]의 연장선에서 강북 예술교육 연구 핵심내용을 큐레이션하고 실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예술교육 분야 연구, 실행 경험이 미비한 강북문화재단 현시점에서 광역 단위 예술교육과 차별점을 모색해보고 향후 지역 기반 예술교육 방향설정

세부 진행내용 및 성과 요약

단계	추진 내용	참여자 수		운영기간/ 운영횟수
		예술가· 전문가	지역주민- 주체적 참여	
라운드 테이블 〈곳곳〉	지역 기반 예술교육 정착을 위한 다양한 주체 의견수렴 주제별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한 구체적 지역 욕구파악	22명, 3개 단체	8명	6월~12월/ 3회
예술교육가 양성과정 〈Gae모임〉	예술교육 분야 전문가 양성 과정 및 프로그램 기획, 실행 운영 지역 기반 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향후 방향 모색	100명	60명	9월~12월/ 18회
참여자 수 총계		122명, 3단체	68명	6월~12월/ 21회

예술교육 지역자원 현황 및 요구 실태 파악

-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앞서 3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강북문화재단 '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미비한 참여에 대한 재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모, 지원의 형태가 아닌 지역 내 예술교육 인식확산과 전문가 역량 강화로서의 플랫폼으로 작용하고자 하는 방향성 발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예술교육

- 〈양성과정〉 예술교육 분야 활동을 희망하지만, 초반 시작 지점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모집을 통해 지역자원과 예술교육 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예술교육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을 통해 예술교육 분야에 진입하는 참여자들의 현장 경험 확대 및 기획역량 강화

향유자로서의 예술교육, 미적체험 대상 확대

-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술교육 실행 주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식확산

라운드테이블 〈곶곶〉



프로그램 개요

기간 | 6월 ~ 12월 (총 3회)

장소 | 허브36.5, 나우예술심리연구소, 카페시집

방식 | 오프라인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강북 예술교육의 필요요소에 대한 공유와 토론
- 앞서 진행한 지역 특성 예술교육 현장연구의 연장선으로 실제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 및 방향성 모색
- 지역 기반 예술교육 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운영 주체 욕구파악 및 방향설정

2021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곶곶> 라운드테이블 <곶곶> 1차

#1. 방향성

예술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진행일시 | 2021.06.30.(수) 16:00 - 18:00

진행장소 | 허브 36.5(강북구 미아동)

참석자 | 강북문화재단, 퍼실리테이터, 지역 예술가/기획자/예술교육활동가 총 10명

참여자 주요 발언

참여자A 제가 생각하는 예술교육은 어떤 아주 강력한 체험,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보는 형태라고 생각함. 또는 학습으로써 아이의 진로가 되는 아카데미적 예술은 지속성을 가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자B 예술가들의 역량 강화를 하면 이 지역의 예술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한다.

참여자C 사실은 오랜 시간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이 교육을 대하는 태도는 돈벌이의方便이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공연을 못하고 사니까 가르쳐서 먹고 살자 라는 생각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왔다.

참여자D 우리 자신이 이런 교육의 틀을 깨부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눈다는 개념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E 성인이나 그리고 시니어는 기능 위주 교육 수요가 높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이미 강북의 아이들은 예술교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다. 성인 연령대와 초, 중, 고등학생 아이들의 예술교육 경험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다.

참여자F 왜 예술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확산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것부터.

참여자C 대상자나 향유자들에 대한 고민보다 이것(강북의 예술교육)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이 우리 지역 안에 있는지 제일 궁금하다.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활용의 중요성을 느낀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예술교육

예술교육은? [사유/ 같이 성장/ 수다/ 다양성/ 지역기반] 이다.



2021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곳곳> 라운드테이블<곳곳> 2차

#2. 키워드

강북의 예술교육 키워드 발견

진행일시 | 2021.06.30.(수) 16:00 - 18:00

진행장소 | 허브 36.5(강북구 미아동)

참석자 | 강북문화재단, 퍼실리테이터, 지역 예술가/기획자/예술교육활동가 총 10명

참여자 주요 발언

참여자A 작년 연구할 때 설정한 7개 키워드는 일상 속에서 필요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교육의 카테고리들을 찾고 묶어냈다.

참여자B 강북구처럼 산과 들과 모래가 있는 지역이 서울엔 별로 없다. 특히 모래 놀이터가 있는 지역이 없다. 자연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가장 자연 친화적인 지역이 강북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C 작년 연구 키워드와 말씀해주신 것을 토대로 제 생각엔 자연 친화적인 것과 가족 특화형이 가장 큰 키워드다.

참여자D 동네에 골목길이 특색있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긴 발자취들을 따라가 보면 힌트가 있을 것 같다.

참여자C 친절한 인포메이션과 좀 더 인상깊은 이미지, 강북만의 문화예술 일상성을 갖고 있는 브랜딩이 필요하다. 또한 강북구가 다양한 대상에 따라 기획의 지역이 되는 키워드도 중요할 것 같다.

참여자A 당사자성을 가지고 내가 찾고 싶은 키워드를 찾고 싶다. 당사자로서 키워드를 발견하고 싶고 내 욕구랑 맞는 것들을 찾고 싶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게 사실은 내 안의 지역성이다.

참여자C 역사도 자원 중에 하나니까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

참여자D 역사라는 게 꼭 되게 대대적인 역사가 아니라 마을, 동네의 역사일 수도 있고, 사람의 역사일 수도 있다.

참여자A 물리적인 키워드인 자연, 역사, 골목길 등이 우선 보이지만 결국 지역안에서 사람들의 경험이 역사가 되고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간의 연대와 협력이 지역 예술교육을 기반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다.

주요 키워드

#일상성 #놀이터 #자연

#동요 #골목길 #역사

#원도심 #마을

#북한산 #사람



2021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곳곳> 라운드테이블<곳곳> 3차

#3. 지속성

계획과 실행, 그 이후 지역 기반 예술교육 활동에 관하여

진행일시 | 2021.12.16.(목) 14:00-17:00

진행장소 | 카페시집(강북구 미아동)

참석자 | 강북문화재단, 퍼실리테이터, 예술교육가 양성과정 참여자 총 8명

참여자 주요 발언

참여자A 기존엔 정적으로 문학 위주 수업을 했었는데 연극 장르를 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하다 보니 수업방식이 더욱 풍성했던 것 같다. 프로그램 기획의 중심이 나에서 상대로 바뀐 것 같다.

참여자B 기획과정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 만큼 이번 과정과 프로그램 실행은 나에게 처음이다. 여러 번의 수정과 피드백을 경험하며 어느 순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참여자C '만남'과 '실행'이었다. 경험보다는 한차원 높은 실행, 마지막은 '진심'이었다. 조금 더 당사자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대했기 때문에 더욱 뜻 깊게 활동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나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기도 했다.

참여자D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이번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선 예술교육 과정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인 것 같다.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처음이라 현장구현에 신경을 많이 썼다.

참여자E 생각보다 깊이 참여하게 되었다. 가볍게 학습과정인 줄 알고 이번 양성과정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직접 기획을 통해 프로그램까지 실행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참여하게 되었다.

진행자 아이만 하는 프로그램보다 학부모도 참여도가 높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느꼈다.

송수민님 정답이 아닌 것을 흔자 사유하게 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참여자E 프로그램 과정을 경험하며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D 사회적 문제(자살 등)에 놓인 대상들을 만나보고 싶다.

향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예술 강사들이 모여 있는 플랫폼 형태를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였던 분들이 서로 풍성하게 합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예술교육가 양성과정

〈Gae: gangbuk arts education 모임〉



프로그램 개요

기간 | 9월 ~ 11월 (총 10회)

장소 | 돔예술사랑채, 나우예술심리연구소, zoom

방식 | 오프라인 및 온라인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역 기반 예술교육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예술교육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교육의 원론적 강의와 사례발견 및 참여자 시각의 미적체험 워크숍 진행
- 강의를 통해 도출된 각자의 관심사별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실행 가능한 기획서 도출 및 실제 프로그램 적용

2021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곳곳>

예술교육가 양성과정 <Gae모임>

세부 내용

단계	단계	추진 내용	단계
1회차	9.1.(수) 14:00~17:00	# 서로알기 - 강북형 예술교육가 양성과정 소개 - 참여자&멘토 소개. 간단한 자기소개 워크숍 과정을 통해 첫 인사 나눔	강북문화재단, 퍼실리테이터, 예정원, 김도유
2회차	9.6.(월) 14:00~17:00	# 참여자 되어보기 - 사진 미적체험 워크숍 - 참여자로서 경험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표하연 작가 (사진관 오늘)
3회차	9.9.(목) 14:00~17:00		
4회차	9.13.(월) 14:00~17:00	# 예술교육 사례발견 - 주목할 만한 예술교육의 국내외 사례공유 - 공유된 사례의 시사점 나누기	퍼실리테이터, 예정원, 김도유
5회차	9.16.(목) 14:00~17:00		

세부 내용

6회차	9.28.(화) 14:00~17:00	# 기획 소재 찾기 - 앞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의 경험과 토론을 바탕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기획 소재 찾기 - 프로그램 실행가능한 내용 추려보기 - 관심사 별 2개 그룹 나누기, 기획 방향 설정	퍼실리테이터, 예정원,김도유
			
7회차	10.14.(목) 14:00~17:00	# 기획서 완성하기 - 그룹별로 멘토와 참여자가 기획서에 대한 피드백 나눔	퍼실리테이터, 예정원,김도유
8회차	10.21.(목) 14:00~17:00	-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획서 재점검 (10회차 과정 종료 후 프로그램 실행)	
			
9회차	10.28~29 *그룹별 상이	# 실행준비 - 완성된 기획서를 토대로 실행 제반 사항 점검 - 공간답사, 재료구매,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등 실행 최종점검	퍼실리테이터, 예정원,김도유
10회차	11.4~11 *그룹별 상이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금 기분이 어때?」, 「네 마음을 보여줘!」



프로그램 개요

기간 | 11월~12월 (총 4회 X 2개 프로그램)

장소 | 돔예술사랑채

방식 | 오프라인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연극놀이, 시각예술 활동 등 미적체험을 통한 감각 확장 워크숍
- 일상의 사물과 공간을 활용하여 내(가족)-사회 관계성, 감정을 비추어 봄
- 예술가의 시선과 소통방식으로 일상을 새롭게 생각하고 경험해 봄

2021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곳곳>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세부 내용

프로그램① – 지금 기분이 어때?

진행일시 | 11. 20. ~ 12. 11. 매주 토요일 10:00~12:00 (4회차)

참여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총 10명

교육장르 | 연극놀이, 시각(북아트)

차시별 세부내용

(차시) 수업명	주제	내용	준비물
(1차시) 마음 열기	일상 사물의 재발견과 물성을 통한 연극놀이	■ 첫 만남! 자기소개 ■ 일상 사물로 대화하기 - 일상사물 17가지 물성을 활용하여 감정 이야기 나누기 ■ 움직임 표현하기 - 사물의 물성과 연결되는 나, 친구의 감정을 상상하고 표현해보기 - 사물들을 의인화하여 사물에 감정 넣어보기	스케치북, 물결포스터, 폴라로이드, 딱풀, 네임펜,
(2차시) 나를 고르기	사물에 비추어 감정을 표현해봄	■ 사물에 감정이 있다면? - 지나칠 수 있는 일상 물건들에 집중 ■ 이것은 말이야 - 사물이 주로하는 기능 이외 감정을 입혀 소개해보기 ■ 그래서 기분이 어때? - 사물에 집중해본 감정을 토대로 나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 해보기	사물 17개 (색연필/털실/ 고무줄/돋보기/ 낙엽/리코더 등)
(3차시) 나로 돌아 가기	내 감정 표현하기	■ 나에게 물어보기 ■ 질문 릴레이 ■ 감정별 표현법 공유하기	필기구, 개인명찰
(4차시) 나를 말하기	나의 스토리북 만들기	■ 내가 고른 물건은? - 지난 회차 동안 본인의 소재가 되었던 물건을 소개하고 나와 어떤 점이 닮았는지 소개하고 스토리북에 담아보기 ■ '감정'란 무엇인가? - 인상적이었던 표현들 공유하기	개인별 활동 스케치북

세부 내용

프로그램② 네 마음을 보여줘!

진행일시 | 11. 20. ~ 12. 11. 매주 토요일 14:00~16:00 (4회차)

참여대상 | 초등학교 4~6학년&보호자 (5팀, 총 10명)

교육장르 | 연극놀이, 시각(콜라주)

차시별 세부내용

(차시) 수업명	주제	내용	준비물
(1차시) 동네로 떠나는 여행	생활환경을 소개하며 서로 알아가기	■ 동네방네 우리 지도그리기 ■ 지도에 담긴 이야기 ■ 움직임 워크숍, 몸과 마음 풀기	마스킹테이프, 시트지, 유성매직
(2차시) 마음 박스 열어 보기	나와 가족들의 감정을 알아가기	■ <마음박스> 열어보기 ■ 이모티콘으로 꺼내보는 표정과 감정 ■ 만약에 ○○할 수 있다면? ■ 콜라주 설계도 제작하기	박스, 이모티콘 시트지, 마이크, 잡지, 풀, 가위, 도화지, 유성매직
(3차시) 우리 가족 콜라주	감정 콜라주 제작하기	■ 우리가족 감정이미지 만들기 ■ 그림자로 어떻게 보여질까? ■ 그림자 워크숍	사막, 우드락, 골판지, 크래프트지, 조명, 양면테이프
(4차시) 내마음 그림자	그림자를 통해 우리가족 마음 표현하기	■ 만약에 워크숍 - 우리 가족이 만든 콜라주를 활용해 설정된 상황을 그림자극으로 표현 해보기 ■ 그림자 공유회 - 가족별로 표현한 콜라주와 그림자 몸짓으로 미니 그림자극 진행	스크린, 사막, 조명, 스피커

프로그램① 지금 기분이 어때?



프로그램② 네 마음을 보여줘!



2021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곳곳> 총평 및 제언

퍼실리테이터 (송수민)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중요성은 올해도 꾸준히 언급되었다. 그리고 중앙, 광역, 기초 단위에서 각자, 또는 함께 고민을 거듭하며 '지역'의 예술교육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강북문화재단의 <강북구 지역특성 예술교육 기반조성 - 강북곳곳(이하 강북곳곳)>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작되었다.

확정하기

강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예술교육 기반 다지기의 시작은 '확장'이었다. 앞으로 강북의 예술교육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예술교육을 함께했던 지역의 예술교육 단체와 새롭게 협력할 예술교육 전문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번 강북곳곳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북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예술교육 강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강북에 다양한 색을 더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경험하기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겉다 보면 보이는 풍경들, 사람들과의 대화, 경험으로 체득되는 지역의 정보 등 지역을 담은 예술교육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부분들이다. 따라서 강북곳곳 <강북형 예술교육 기획자 양성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경험'이다. 강북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성과정에 참여한 강사들의 아이디어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는데, 강사에게는 지역에 대한 경험을, 참여자에게는 예술교육에 대한 경험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올해 강북곳곳을 통해 강북에서 활동할 새로운 예술교육 강사들을 발굴하고 강북의 예술교육을 실험해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만,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던 단체와 새롭게 강북에서 활동을 시작할 강사들의 활동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원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조금 더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존 단체는 그 고유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강북에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강사들은 강북문화재단의 기획사업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하는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 강북에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1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곳곳> 함께한 사람들 & 참여현황

함께한 사람들

퍼실리테이터/ 사업 총괄 기획 및 자문 송수민

프로젝트매니저/ 사업 기획 및 진행 송민정

전문가/ 양성과정 및 라운드테이블 멘토 김도유

전문가/ 양성과정 및 라운드테이블 멘토 예정원

20년 연구기반 라운드테이블 자문 광경숙

20년 연구기반 라운드테이블 자문 최소진

예술교육가 양성과정 gae모임 강수정 심가연 이주희 이승현 이은아

3개 프로그램

122명 **3**개 단체 예술가·전문가



68명 지역주민·주체적 참여



2021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곳곳> 사업 아카이빙 영상



2021 예술교육 기반조성 <강북곳곳>
사업 아카이빙 영상

강북문화재단 유튜브 공식채널
<강북클러스터> 아카이빙 영상

04

도시문화LAB IN 〈강북청년집단LRC〉

도시문화LAB IN 〈강북청년집단LRC〉

발자취 (2019~2021)

〈강북청년집단LRC〉

* 사업목적 및 추진방법

*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 추진내용

* 참여예술인 인터뷰

〈강북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TF〉

전문가 총평 및 제언



〈도시문화LAB IN:강북〉 발자취

〈도시문화LAB IN: 강북〉발자취

단계	내용
2019년	[키워드: 도시재생, 지역예술활동, 교류활동기반마련] - 청년예술가들의 강북구 문화예술로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2020년	[키워드: 나는 우리동네 '청년OO'] - 지역과 청년의 문화예술활동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동네' 속에서 지속가능한 청년활동 생태계 자생력 키우기
2021년	[키워드: 강북의 OO을 만나다] - 지역 이야기를 사람, 공간을 통해 리서치하고, 청년예술가 시점으로 문화예술적 연구 및 프로젝트 진행

2019년 지역형 청년예술단 지원사업 〈서울청년예술단 X 강북구〉

발칙한 상상 청년들의 골목길 프로젝트

- 강북구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청년예술가들과 문화와 예술로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기획
- 지역 예술활동을 즐거움과 일터로 느낄 수 있는 청년예술가들의 인식 환기
- 청년예술가들의 강북구 내 지속적인 교류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분야의 청년예술가들의 협업 기회 마련
- 향후 재단 및 지역의 도시재생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예술가들의 예술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강북구만의 문화예술로서의 도시재생 특화 프로그램 정립

2020년 지역연계형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015」- 청년공유 〈우리동네〉

- 강북구 지역 내 거점형 신규 청년예술인 발굴
- 청년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의 동기 부여를 위한 실존과 공존의 경험과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지속가능성과 청년다운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공동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청년예술인들의 자립적 예술활동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예술 활동의 동기와 단서 이해 및 활동 영역 확장
- 청년들의 실험과 시도를 통해 지역 내 경험을 축적하고 자립에 발판이 되는 환경 조성
- 청년예술인들의 창의성을 중점을 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추진

2021 도시문화LAB IN 〈강북청년집단 LRC: 로컬레코드컬렉티브〉

사업 목적

청년예술인 발굴 및 공동체 형성

지역리서치 기반의 기획자 역량을 갖추고 있는 혹은 관심이 있는 청년 예술가(기획자) 발굴을 통해 지역과 하나 되는 유의미한 성장지원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경험 축적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의 이슈에 따른 다양한 매체, 사람 등의 자원과 협업하고 이를 프로젝트화 시키는 과정에 대한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청년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지역 기반 활동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

네트워크 확장 및 활동 연결

청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실험 및 시도와 더불어 동료, 선배들과의 협업으로 인적자원 축적을 통해 자립의 발판이 되는 환경 조성. 청년예술가들의 예술활동이 지속 가능하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청년주체 거버넌스 조직 형성을 장기 목표로 함

청년생태계 구축 및 자생력 확보

선정된 5인 청년예술가 외 강북구에 관심갖고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지역문화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매칭을 시도하고자 함

추진 방법

청년예술인 발굴

〈기록, 강북의 OO을 만나다〉를 주제로 청년예술인 모집

청년멘토 운영

강북의 청년 퍼실리테이터 발굴 및 성장 지원

지역이해 워크숍

청년예술인들의 지역이해 워크숍(자문회의) 및 지역탐방 추진

네트워킹

선정된 청년예술인 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프로젝트 실행

지역 활동에 대한 3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한 아카이빙 전시

홍보 지원

개별 홍보물 제작 지원을 통해 청년예술 활동 홍보

지역 내 협력

강북 지역 특색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아카이빙 진행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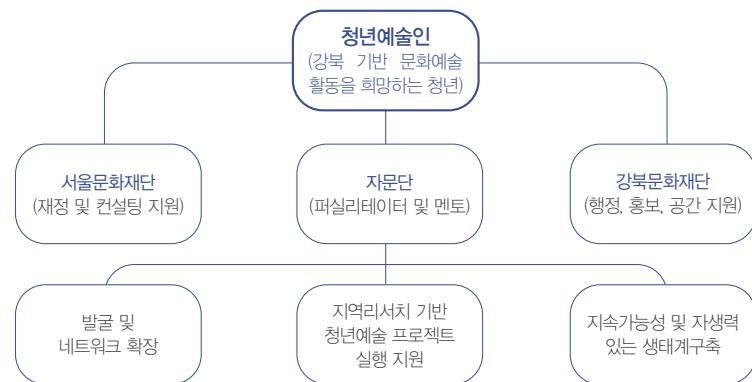
추진 구조

청년예술인들의 지역 내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한 청년예술활동 자생력 확보



선정 청년예술인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체계

청년예술인들의 과정 중심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



추진일정

추진단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사업 기획 및 설계							
청년예술인 공모 및 선정							
지역이해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프로젝트 추진							
프로젝트 발표							
아카이빙북 제작							
성과공유회 개최							

추진 내용

청년예술인 발굴

- 〈강북의 ∞을 만나다〉를 주제로 강북구에서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예술인 모집
- 강북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 SNS채널을 통한 모집 (공고게시: 2021.5.24.~6.11.)
- 참여동기(청년예술인으로서의 참여의지), 지역관심도(지역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프로젝트 수행능력(참여하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 사업성과(사업지속 및 확장가능성), 지속가능성(지역 내 청년 자생력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의 진행
- 총 60건(개인 및 단체 총 76명) 지원, 최종 5명 강북구 청년예술인 선정
- 월 100만원 청년예술인 활동비 5개월(총 2,500만원) 지원
- 강북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는 계기 마련

공동체형성

- 강북구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연속성 있는 후속 지원 체계 마련
- 청년멘토 운영을 통해 강북의 청년 퍼실리테이터 발굴 및 성장 지원

* 추진방법 : '2020 지역연계형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015'의 가참여자(청년예술인) 중에 '청년멘토'로 발굴 및 육성하여 본 사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
* 세부내용 : '청년멘토'는 청년 퍼실리테이터로서 올해 선정된 청년예술인과 재단, 지역의 예술인, 유관 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통 창구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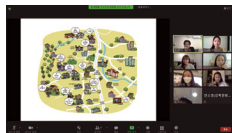


네트워크 확장 – 지역이해워크숍 〈시시콜콜 동네 이야기〉

- 지역의 멘토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인적, 공간, 스토리 등)을 접함
- 강북구 외 유사한 운영 사례, 운영자와의 만남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리서치 기반의 프로젝트에 관한 모티브를 얻는 과정,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예술적) 환경, 사람, 공간, 감각 등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

리서치 · 프로젝트 〈강북청년집단LRC; 로컬레코드콜렉티브〉

- 리서치 · 프로젝트 소개: 지역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집'이라는 큰 주제로 탐색하고 다섯 명의 시각예술가가 각자의 관심사, 작업 방식에 따라 영상, 사운드, 가이드북 등의 형태로 리서치 · 아카이빙
- 예술인 협력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실행비 총1,500만원 지원

**[리서치 · 프로젝트①]**

- 프로젝트명: 인류세 IN 강북 혹은 도시
- 참여예술인: 김민지 X 김아람
- 프로젝트 내용: 두 작가는 현재 '인류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리서치 하고 있다. 특히 김아람 작가는 도시와 동물의 공존 관계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 중이고, 김민지 작가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작업 중이다. 두 작가의 관심사의 연장선으로, 인류세를 강북 지역과 연결시켜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집)와 연결시켜 작업을 계획하였다.

**위드개미 프로젝트 (김아람 X 김민지 작가)**

위드개미는 강북구를 시작으로 도시에서 개미집을 찾고 위치를 수집하는 프로젝트다. 자연과 같이 도시에도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 중 대표적인 '개미'를 찾고 그 집을 추적하는 행위는 단일화 되는 도시에서 기능하고 있는 생태계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획일화되고 단순해지는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존재들을 고민하며 이와 같은 생태적 감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하루의 경계 (김민지 작가)

김민지 작가는 '하루의 경계의 소리'에 대한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계에 본인의 영상 작업 중 인류 태초의 이야기,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새로운 빙하기에 대하여〉의 연장 작업을 형식이다. 이 작업물을 지역 아카이빙과 연계시켜 강북의 하루 경계를 사운드로 표현했다.

[리서치 · 프로젝트②]

- 프로젝트명: 집 길 길 집 : 집, 사람, 식물
- 참여예술인: 박보영 X 류송이 X 이필
- 프로젝트 내용: 커뮤니티를 이루는 구성요소인 집, 사람, 식물과 이의 본질을 파악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하며, 손바닥, 핸드폰 사이즈의 작은 책자를 가지고 강북을 여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할 수 있는 책을 제작하였다. 강북구에 여전히 남아있는 골 집, 골목길의 형태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집 옆 정원을 주제로 지역을 구성하는 것들을 담아보고자 한다.

과녁배기 〈집〉 (박보영 작가)

막다른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골 집'을 리서치하며 누군가의 추억과 기억을 함께 다루었다. 또 강북구에 위치한 아파트 곳곳을 누비며 현대사회에서 인간에게 '집'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했다.

더듬다, 삶 (이 필 작가)

강북 곳곳을 누비는 두부트럭과 함께 두부가 집집마다 도착하는 여정에 함께하며 집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람에 집중하여 그들의 기억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형태로 바꾸는 레시피를 개발하기도 했다.

기억의 레시피 (류송이 작가)

골목과 그런 집들이 만나는 장소마다 놓인 식물과 작은 정원의 이미지를 모아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탐구한다.



▲ 집길 길집 책자(아카이브 영상 중)



▲ 과녁배기 〈집〉 '충충대' 영상 중



강북구에 풀이 켜지고, 풀이 켜지면 2021.8



빈 틈 없는 취향 전시, 정원 2021.8

▲ 책자 '집길 길' 中

2021 도시문화LAB IN 〈강북청년집단 LRC〉 참여예술인 인터뷰

김수빈 (연극/청년멘토)

Q1.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연극 작업을 하고, 예술교육과 관련된 작업 및 업무를 하고있다. 작년부터는 직접 배우로 참여하기 보다는 희곡을 쓰거나 드라마터그로 참여하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고, 예술교육 쪽으로 좀 더 힘을 주고 있다.

Q2. 본 사업을 통해 진행하신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2020년 강북문화재단을 통해서 본 사업을 참여했던 청년예술가로서, 제가 했던 본 사업을 통한 경험이 금년 사업과 연계성을 갖고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했다. 작년에 했던 워크숍과 과정운영 및 결과 등을 참고하여 2021년 본 사업이 운영되기 위한 워크숍 및 활동 등의 과정마다 의견을 내고 동참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청년예술가들과 재단 사이에서 의견 전달 및 소통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하고자 했다.

Q3. '강북'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2020년 초 강북구로 이사를 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선택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처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했는데, 그 사용 가능한 곳이 강북구로 한정되는 것을 보면서 행정 구역으로서의 강북구, 내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서의 강북구 등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및 정의들이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한 궁금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짓는 이유가 되었다.

Q4. 동료 예술인과의 네트워킹 · 협업 시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을 만나고, 그들이 생각하고 본 강북구를 볼 수 있었던 점이 본 사업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에도 시각, 음악 장르의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사고와 작업방식을 올해도 역시 볼 수 있었다. 올해 사업의 경우, 사업 중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결과발표로 기획했던 전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청년예술가분들이 온전히 프로젝트에 작업에 대한 에너지를 쏟을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Q5. 리서치 ·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2020년 사업에서 청년예술가로 참여하여 본 사업의 유익을 여실히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2021년 청년예술가분들도 그 유익을 충분히 누리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지역 청년예술가들이 더 늘어나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청년멘토로 사업에 일부 참여하면서 낯선 사람들이 만나 예술적 영감과 작업방식을 공유하며 협업을 하는 것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절감했다. 그래서 재단은 지역예술에 대한 정의와 협업에 대해 더 섬세한 지침과 사전 안내 교육을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청년예술가 개인도 개인 작업과는 조금 결이 다른 창작적 욕구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Q6. 청년예술인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부터 소속극단에서 지역문화예술사업을 해오면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와 생각은 지금까지 이어 왔다. 코로나19로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등장하고 기존의 유효했던 개념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작년과 올해 지역성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의미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또한 발견한다. 그러나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이다. 이제는 거대한 한 명의 예술가가 한 지역을 대표하는 시대가 지나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활동을 함께하며 지역을 예술가적 시선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예술가들의 연대와 연결이라 생각한다.

김민지 (시각예술)



Q1.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시각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연약한 조각 혹은 영상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각적인 것들 보다 공간각적인 요소에 더 주목을 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시대를 겪으며 인류세와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다.

Q2. 본 사업을 통해 진행하신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아람 작가님과 함께 위드 개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강북의 지형적 특징에 주목을 하여 작업을 했고 〈위드개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개미'에 대한 리서치를 많이 했다. 프로젝트 시간이 많지 않아 인터넷으로 찾은 정보들과 논문위주로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김아람 작가님과 계속해서 도시에서 개미를 찾아 다녔다.

Q3. '강북'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2021년 3월에 강북구로 작업실을 옮겼다. 그동안 작업실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현재 작업실을 보고 오래 정착해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곳에 있는 작가들도 만나고 작업을 이어가고 싶어서 신청하였다. 또한 작년에 015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좋은 작가들을 많이 만났고 함께 개인작업도 진행한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또다시 신청하게 되었다.

Q4. 동료 예술인과의 네트워킹 · 협업 시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강북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며 동료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성공적인 네트워킹이라고 말하긴 힘들겠지만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던 김아람 작가님과는 기회가 된다면 위드개미 프로젝트를 좀 더 발전시켜 개미 박사를 만나던지 워크숍을 열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Q6. 리서치 ·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딱히 리서치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지만 시간이 대체적으로 너무 짧았던 게 아쉽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똑같이 경험했던 건데 사업이 5~6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2개월 정도는 예술가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2개월 정도는 리서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되지 않는다. 이 사업의 방향성을 리서치 위주인지 결과물 위주인지를 정하고 시작하거나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결과물들이 완성도 있게 나오지 않을까 한다.

Q7. 청년예술인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자생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문화사업들은 6~8개월 단위이고 대다수의 청년예술가들이 공모사업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조적으로 크게 당장 변화할 순 없겠지만 지속성 있는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나고 그 지속성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

김아람 (시각예술, 미디어, 퍼포먼스)



Q1.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는 유년시절 부터 동물과 유대가 있었고, 제인 구달의 책을 읽으며 반려동물에서 다양한 개체와 환경, 자연, 기후 문제에 대해 시각의 넓혔다. 이후 대학에 와서 인간과 가장 밀접한 동물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족이 인간에게 오기가 지의 생산 과정과 환경에 대해 조사하면서 인간의 욕망과 모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2019년부터 영상매체를 다루며 인간이 만든 윤리와 도덕이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고, 어디까지 합리화 될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 인간과 대립적 관계에 놓인 유해조수 비둘기, 생태계 교란종 뉴트리아의 공존에 대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작업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접어들며 식물의 에이즈, 화상병(잎, 줄기가 타들어가는 세균성 전염병)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있다.

Q2. 본 사업을 통해 진행하신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민지X김아람, 위드개미, 개미집을 발견했다면 지도에 표시해보세요_리서치기반인쇄물_29x42cm_2021

도시엔 인간만이 살고 있을까? 위드개미는 강북구를 시작으로 도시에서 개미집을 찾고, 위치를 수집하는 프로젝트다.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사이를 걸어 다니는 개미를 따라가면 그들의 집을 알 수 있을까. 개미는 인간과 도시에서 공존하는 곤충이다. 개미는 지형아래에 굴을 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땅 표면의 개미집이 사라진다고 해도 도시 밑에 다양한 생태계를 꾸리고있다. 어쩌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개미집의 위치를 표시 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현재 도시는 인간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단일화 되고있다. 그래서 도시는 비슷한 색과 풍경을 가진다. 하지만 자연과 같이 도시에도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도시에는 여전히 인간 외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와 공존하고 있는 개체 중 대표로 개미를 찾고 그들의 집을 추적하는 행위와 동시에 타인에게 개미집을 찾는 동기부여를 제시한다. 또한 단일화된 도시에서 생태다양성을 발견하고,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비인간존재를 찾는 데 의미가 있다. 확립되고 단순해지는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존재들을 고민하며, 이와 같은 생태적 감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한다.

Q3. '강북'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과연 도시와 자연은 공존하고 있을까? 강북구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래서 강북구의 장점은 다양한 풍경을 마주하는 공간이 많다. 나는 화계사 입구를 통하여 북한산을 자주 오른다. 북한산 외에도 오패산, 우이천, 공원(한빛 어린이 공원, 근린 공원, 수유일공원, 4.19 민주묘지 공원) 등이 있다. 그리고 산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 되어있다.

하지만 나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강북구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수유동 골목에는 높은 건물을 세우느라 현 건물을 부수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나는 자연과 대비되는 단일화 된 도시를 보면서 이 상태가 같이 공존 하고 있는 건가? 단절

된 상태는 아닐까? 생각했다. 북한산에 올라서 본 도시는 점점 개발되고 있고, 높고 낮은 기하학적인 도형들로 가득 차있다. 도형으로 둘러 쌓인 도시의 풍경은 북한산과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도시와 10분도 안 되는 거리의 북한산에는 다양한 종 이 서식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 하다. 왜 숲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도시는 단일화 되는가? 도시와 자연이 유기적일 순 없을까? 단지 산은 산이고, 도시는 도시일 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일지도 모르는 이 질문은, 언젠가부터 현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이러한 나의 문제의식을 리서치 할 수 있는 곳은 녹지공원의 면적이 54%가 넘는 강북구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Q4. 동료 예술인과의 네트워킹 · 협업 시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생태계와 도시 환경에 관한 나의 문제의식이 나 혼자만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격려되었다.

Q5. 리서치 ·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역시 잠자는 것 외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같이 작업한 김민지 작가와 이 외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Q6. 청년예술인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문화재단 및 문화 활동가들과 원활한 소통, 그리고 창작자의 올바른 인품과 가치관.

류승이 (시각예술)



Q1.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각예술과 예술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관심 있는 분야는 기호와 언어, 드로잉과 움직임, 우리가 서로 교환하는 시선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틈과 같은 누락된 부분에 관심이 많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형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근래 지역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면서 권위와 위계,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조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Q2. 본 사업을 통해 진행하신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강북을 새롭게 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걸어 다니며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신기한 풍경을 모았다. 매번 리서치를 진행할 때마다 내가 유년 시절을 보낸 바닷가 시골 마을이 떠오르는 게 참 신기했다. 무엇이 도시의 모양을 만드는 것일까 궁금해하며 시작한 프로젝트는 사람뿐 아니라 사물, 자연, 도시가 풍기는 분위기와 느낌, 직관적으로 얻는 정보들에 대한 고민의 과정으로 이어졌다. 결국 나의 도시 연구는 영동하게도 나의 기억, 개인의 기억과 느낌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되었다.

이런저런 취향과 호기심이 맞닿는 부분이 많았던 보영, 채로운 작가와 함께 책을 만들게 되었다. 강북을 살며 느끼는 분

위기에서 집, 길, 끝 집, 레시피 등의 키워드를 선정하였고, 최종 책 제목은 〈집 길 끝 집〉이 되었다. 길과 집이 열거설기 모인 마을에는 아직 끝 집이 있고, 정원이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우리는 풍경을 모으고, 문장을 짓고, 이야기를 (그리고 공과자들) 구워냈다.

Q3. '강북'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성북구와 강북구의 경계에서 보통사람들의 자서전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와 전시를 진행하며 이곳의 청년들을 자주 만났고, 지역에도 좋은 기억이 많았다. 운 좋게 자서전 프로젝트 달팽이와 이름이 닮은 민달팽이 협동조합의 도움으로 생활의 터전 검 작업실을 미아동에 얻게 되면서 더욱 지역에 관심이 간 것도 사실이다.

자주가는 솔샘역과 가오리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만 머무르던 나에게 낯설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 연두색 우이신설선을 타고 마을을 이동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강북구는 푸른 레이어가 겹겹이 쌓여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패턴 작업 같았다. 문화, 역사, 자연이 부드럽게 도시를 감싸는 것을 보면서 이런 도시의 기억은 대체 어떤 모양일지, 누가 이곳을 구성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했다. 결국 하나의 도시를 상상하게 하고, 감각하게 하는 것은 거주민들의 개인사와 시각일테니, 구의 형태는 북한산과 연결되며 어딘가로 열리고, 어딘가는 닫힌 재미있는 지역이고, 그런 높고 낮은 지형위로 풍부한 역사와 이야기가 도심으로 흘러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녹지가 푸르다고 하기보다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강북 지역의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어졌다.

Q4. 동료 예술인과의 네트워킹·협업 시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5명의 청년 예술인이 선정되고 왜 각기 다른 우리가 선정 된 것인지 궁금했다. 언뜻 유사한 활동을 해 보이는 다섯 명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다양한 작업 방식과 상이한 문제의식을 품고 있었다. 다섯 명이 온전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에는 서로를 알아가기에도 조금 빠듯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작업방식에 있어 신뢰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준 작가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서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과정은 없었지만 직접 결에서 그들의 철학, 삶에 대한 태도를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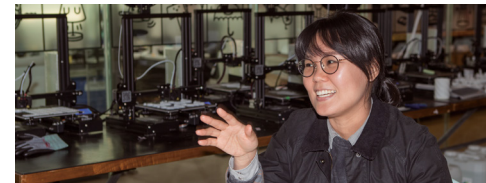
Q5. 리서치·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가장 예술스럽지 않은 순간을 만났고, 모았고, 또 예술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강북에서 올해 3/4 정도를 보내면서 흐르는 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과 정신 모두의 감각을 깨우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유감스러운 일, 감사한 일들이 뒤섞이며 마음이 조금 복잡하지만 앞으로 남은 날의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는다.

Q6. 청년예술인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인 참여자 간의 신뢰와 존중, 관과 예술인 사이의 존중과 상호 배려 등 결국 태도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다. 멘토링 같은 경우는 청년예술인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듯이 전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보다는 서로 존중하며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도 오히려 지역을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인이 관이나 사업 담당자를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 관리인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관이 청년 예술가에게 지역을 위해 좋은 일을 해줄 것을 의무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미숙한 지원 대상, 혹은 하청업체와 같이 바라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예술 사업을 운영하고 현장을 만들어감에 있어 모두의 노력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보영 (시각예술-동양화)



Q1.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전 산수화를 기반으로 늘 그 자리에 있는 자연과 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공간에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산수풍경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반영하는 진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영의 범위는 때로 거리를 오가며 보게 되는 일상적 장면,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시간차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 익명과 타인의 삶에 대한 관찰 같은 영역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시대의 장면을 과거와 현대적 예술 언어가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남기는 작업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

Q2. 본 사업을 통해 진행하신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각자 다른 장르에서 작업하는 다섯명의 작가가 만나 강북의 집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익숙한 강북 공간에서 집을 어떻게 작업으로 풀어낼까를 고민하며, 다른 작가들의 작업과 상상을 지켜보는 경험이 무척 흥미로웠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각자 다양한 곳에 멈춰, 다른 감정을, 다른 고민을, 다른 상상을 해왔다. 무수히 단절되고 다시 이어지는 강북의 골목길은 어딘가에 위치한 "집"으로 향하는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골목길 위에 집의 형상은 조각내고 다시 연결하여 하나의 형상으로 재구성하는 사진으로 작업하였다. 그리고 현재 집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 위에 각자의 가정과 상상을 더해 책으로 남겼다. 개인 작업으로는 이 과정의 영감을 모아 '집'이라는 주제로 '미로', '충충대' 영상으로 작업했다.

Q3. '강북'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내게 익숙한 공간을 다른 작가들과 함께 작업으로 남기고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하는 시간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지원했다.

Q4. 동료 예술인과의 네트워킹·협업 시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나가는 작가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좋았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자연스럽게 함께 작업으로 이어졌다는게 놀라웠다.

Q5. 리서치·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지역의 골목길을 다니며 작업으로 담아내는 것이 누군가의 삶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지, 개인의 삶을 예술로 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작업으로 이어졌다. 개인적으로는 익숙하게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로 작업을 남겨보는 기회가 된 거 같아 기쁘다.

Q6. 청년예술인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기 다른 장르 작가들이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작업을 알아가고 함께 하는 작업을 구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계는 기관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의 횟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기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2021 도시문화LAB IN 강북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TF

운영 목적

강북구를 보금자리로 문화예술활동을 희망하는 청년 네트워크 플랫폼 및 지속가능한 연대 활동 발판 마련

운영 일정

- 2021. 8. 계획수립 및 강북청년문화예술 네트워크 TF 구성
- 2021. 8.~11. 네트워크 모임 진행

주요 활동 세부 내용

- 강북청년문화예술 네트워크 TF 구성
- * 강북청년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의 앵커 역할을 할 지역 기반 청년 문화예술가를 중심으로 TF 구성

성명	예술활동분야
송민정	음악치료전공 / 문화예술기획 / 예술교육 ※TF 퍼실리테이터 역할 담당
송민석	연극배우
원나래	시각예술가(추상화) / N개의서울 기획학교PM
양해광	뮤지컬배우
박소영	문화예술기획
라영란	연극배우

- 정기회의 진행(월 1~2회)
 - * 8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5회 모임
 - * 청년예술인 당사자로서 필요한 네트워크는 '무엇'이며, '왜', '어떻게' 네트워크를 지속해나갈 것인지 논의
- 네트워크 형태 및 활동자원 논의
 - * 동네에서 함께 고민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의 필요성 확인
 - * 작업 공간에 대한 필요성 확인 (작업실, 연습실, 전시공간 등)
 - * 예술가들이 본인의 활동 대신에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눈을 돌리는 현실 속에 강북 청년예술인만의 방식을 찾고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 강북구 내 공간 활용 관련 프로젝트의 방향성 설정
 - * 현재 운영이 활발히 되지 않는 공간들(삼양청년회관,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 역사내 시민공간, 강북 문화파출소 등)을 강북청년예술인만의 방법으로 운영해보는 방안 제시
 - * 강북구 내 다양한 유휴공간을 찾는 아카이빙 작업 제시 (예술작업과 프로젝트 실행이 가능한 문화공간, 자유로운 소통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공간 리서치)
- 정체성 확립 및 네트워크 지속 및 확장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 생각 공유 및 소소한 프로젝트 시도도 가능한 느슨한 만남의 장
 - * 각자의 예술작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만남
 - *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 공유: (예시)청년예술인 파티, 오픈클래스, 11 전시회, 주기적인 문화생활모임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네트워크를 지속하고 확장

강북구 내 다양한 공간 탐방 및 전문가 자문 진행

공간 탐방	삼양청년회관	- 삼양청년회관 매니저, 홍보담당자와 미팅 - 삼양청년회관은 서울시 공간으로 1, 2관이 있으며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공공성을 띄는 것이 중요하고 동네 예술가와 협업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	
	카페시집 (아마추어작업실)	- 카페시집 운영 매니저와 미팅 - 카페시집은 동네 안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고자 하며 옛날 다방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서 빈티지하게 인테리어를 했고 이전에는 공간 안에 예술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함. 카페 또는 와인 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전문가 자문	박도빈 (동네형들)	- 청년문화네트워크는 청년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만의 방법으로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술활동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며, 처음부터 큰 규모의 축제보다는 작은 공간들을 이용한 작은 단위의 다양한 문화예술컨텐츠를 운영할 것을 제안	
	이선철 (감자꽃 스튜디오)	- 자기 공간과 본인을 일치화하는 브랜딩이 필요하고 서로 각자의 공간을 만들어서 엮어내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제안	
	심한기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숨)	- 느슨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감각으로 지역을 인식할 필요성 강조	
	손주은, 김은수 (수유리콜라보)	- 강북구 지역 안에서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단체로, 본인들의 활동 및 네트워킹 경험 공유	

전문가 총평 및 제언

박도빈 동네형들 공동대표

사례가 아닌,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 - 지난 3년 간의 도시문화AB을 돌아보며 -

2013년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첫 중간조직인 서울시청년허브가 만들어졌고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의 정책과 맞물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그룹과 청년공간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전에는 '청년정책'이나 '청년활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지역 청년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서울시청년 허브 홈페이지에서 청년단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카테고리에 가장 많은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새로운 세대의 기획자와 예술가는 이전에도 계속 등장해왔지만, '청년으로서의 당사자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획자와 예술가의 등장은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에서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지역마다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의 폭이 넓어지면서 문화예술정책에서도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2016년 '청년예술지원사업'이 새로 생겨났고, 같은 해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 문화기획자의 지역 생존〉은 3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지역의 청년 문화기획자에 대한 관심과 필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과 문화기획자 양성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몇 년이 지난 현재, 서울과 자치구의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활동 주체들이 성장하여 자립하고, 동시에 새로운 주체들이 계속해서 진입하여 다양한 층위의 구조가 생성되어야 한다. 관련 연구나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서울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청년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청년그룹 중 5년 이상 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다. 여전히 새로운 청년예술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왔지만, 정착 생태계는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된다.

청년예술인들은 대체로 청년세대로서의 문제와 예술인으로서의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기성 예술인들도 지원이 필요한데, 왜 청년예술인들만 따로 지원하나'라는 일부 기성세대 문화예술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년예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주로 취업과 창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청년예술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문화예술 분야에 청년세대가 기존의 방식처럼 공모사업으로 진입하는 경우 새로운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한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서의 지원과 기존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획과 창작을 지원하는 예술정책으로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단순히 청년세대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예술과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울연구원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서울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사업 혁신방안 연구」(2019)는 청년예술인 정책이 청년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에만 기초해서는 안 되고 전체 예술생태계의 차원에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청년 예술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새로운 예술발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 기회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청년예술의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기 보다는 청년예술인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지난 3년 간 강북문화재단에서도 도시문화LAB 사업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을 지원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로서 재단의 담당자와 사업에 대한 고민을 종종 나누었고 사업 참여자들과 워크숍과 멘토링, 프로젝트 협업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다. 부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 있고, 앞서 언급한 청년예술과 생태계의 관점에서 도시문화LAB 사업의 몇 가지 성과와 의의를 살펴보려 한다.

① 관점의 전환 : 지역에서 청년예술인으로

2019년 〈서울청년예술단 × 강북구〉의 경우 사업의 주요 키워드가 '문화적 도시재생'이나 '젊은 강북구'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청년예술인들의 활동보다는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콘텐츠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 같다. 참여자들이 기획하고 실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많았지만, 사업의 성과는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정리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2021년에 진행한 〈강북청년집단 LRC〉의 사업 목적에는 '청년예술인의 자립'과 '지역 생태계' 등의 키워드가 등장한다. 이는 재단이 청년예술인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예술인'에서 '청년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지역 생태계'로 변화한 것이고, 사업 내용에서도 프로젝트 실행보다는 지역 리서치와 연구, 기록 등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활동들을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② 새로운 시도 : 프로젝트가 아닌 활동을 지원

지난 3년 간 사업 참여자들의 평가에서 '새로운 시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시도가 가능했던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청년예술인들의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제안 단계에서 내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선정될 수 있으므로 기획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한정되지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역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획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의 사업은 자유도가 높은 반면 참여하는 청년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고민과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문화LAB 사업에서는 그동안 지역의 선배 예술인, 문화예술단체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연결 지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③ 지속가능성 : 지역에서의 자립을 고민

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고, 연속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해 사업이 끝나면 서로 관계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강북문화재단은 도시문화LAB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예술인들과 다양한 형태로 협업을 시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2021년에 진행한 〈강북청년집단 LRC〉에는 2019년, 2020년 사업에 참여한 청년예술인들 중 일부가 청년멘토로 함께 참여했다. 전체 참여자들의 네트워크와 멤버십을 지속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자들과 문화재단의 지역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청년예술인 사업에 있어 꼭 필요한 후속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이 아닌 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하고,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료와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좋은 정책과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생태계의 주체는 청년예술인 당사자들이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가 가능하려면 인간의 생태계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 글로 정리하면 간단한 이 문장들이 각자의 삶과 지역 현장에서는 지남하고 복잡해진다. 강북구에서 청년기획자로서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며 10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는 우리에게 아직도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문화LAB 사업에 담긴 강북문화재단의 고민과 새로운 동료들의 등장은 새로운 상상을 하게 한다.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장의 사업성과에 매몰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발행처



기획/제작

문화사업팀
생활문화 플랫폼 이하나
N개의서울, 예술교육 기반조성 정지현
도시문화LAB IN 정빛나
제작 지원 이유진 김웅진

주최



후원



사진/영상

사진 이은총
N개의서울 아카이빙 영상 삼인칭시점
예술교육 기반조성 영상 콜라보에이전시

디자인

